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한·영 병렬 말뭉치 분석을 통한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다가’의 교육방안 연구



2022 년 2 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공 주 미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한·영 병렬 말뭉치 분석을 통한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다가’의 교육방안 연구

지도교수 권성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 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공 주 미

공주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 년 2월 25일



주 심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권 성 미 (인)

목 차

I. 서론	1
1.1 연구목적	1
1.2 선행연구 검토 및 필요성	8
1.3 연구 내용	17
II. 연결어미 ‘-다가’의 특성	19
2.1 연결어미 의미적 특성	19
2.2 연결어미 통사적 특성	32
III. ‘-다가’의 의미기능별 영어 대응 양상 분석	41
3.1 분석 방법	44
3.2 분석 결과	49
3.2.1 중단전환	52
3.2.2 지속전환	58
3.2.3 인과	63
3.3 시사점	68
IV.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다가’의 교육방안	70
4.1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육 자료 탐구	70
4.1.1 교육 과정 분석	70

4.1.2 교육 자료 분석	71
4.1.3 개선점	76
4.2. ‘-다가’의 수업모형	78
4.2.1 중단전환, 지속전환	78
4.2.2 인과	87
V. 결론	97
참고 문헌	100



표 목 차

<표 1> <연세 한국어>에 제시된 연결어미 ‘-다가’의 문법 설명과 예문	5
<표 2> 분석한 국어사전 3종	20
<표 3> 분석한 한국어 문법서 4종	20
<표 4> 사전과 문법서 7종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 중복도	25
<표 5> 선행연구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	28
<표 6> 한영사전에 제시된 ‘-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	41
<표 7> 한영사전을 토대로 한 의미기능별 ‘-다가’의 영어대응표지 ..	44
<표 8> <AI Hub> 한·영 병렬 말뭉치의 구축 단계 및 내용	45
<표 9> <AI Hub> 한·영 병렬 말뭉치의 구성 내용	46
<표 10> ‘-다가’의 영어대응 표지 및 빈도수	49
<표 11> ‘-다가’의 의미기능별 빈도수	51
<표 12> 중단전환의 영어 대응 표지 및 빈도수	53
<표 13> 지속전환의 영어 대응 표지 및 빈도수	58
<표 14> 인과의 영어 대응 표지 및 빈도수	63
<표 15>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가’	70
<표 16> 분석한 한국어 교재의 목록	72
<표 17> ‘-다가’의 한국어 교재별 제시 양상	73

그림 목차

<그림 1> ‘-다가’의 의미기능별 영어대응양상 분석절차	48
<그림 2> ‘-다가’의 의미기능별 빈도수	52



한·영 병렬 말뭉치 분석을 통한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다가'의 교육방안 연구

공 주 미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어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고,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한 실제 '-다가'의 용례를 활용하여 '-다가'의 영어 대응 양상을 분석한 후에 그를 바탕으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다가'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전과 문법서, 그리고 기존 연구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을 고찰한 후에 그것을 종합하여 '-다가'의 의미기능을 중단전환과 지속전환, 인과로 유형화하였고, '-다가'의 통사적 특성을 주어·서술어 일치 제약, 선·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문장 종결 제약으로 나누어 전환과 인과의 의미기능별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다가'의 영어 대응 양상을 밝히기 위해 한·영 병렬말뭉치에서 '-다가'의 실제 용례를 추출한 후 의미기능별로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다가'의 영어 대응 표지는 품사별로 접속사, 전치사, 부사, 분사구문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상위 60% 이상은 모두 while, after, when, and와 같이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로 나타났다. 의미기능별 빈도수는 중단전환의 빈도수가 제일 높았고 지속전환과 인과가 비슷한 수로 그 뒤를 이었다. 의미기능별로 영어대응 표지를 살펴보면, 중단전환은 접속사 and, after, while, but 순으로 나타났고, 지속전환은 접속사 while, when, and 순으로 나타났

며, 인과는 while, and, when, because 순으로 나타났다. 세 의미기능 모두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가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중단전완은 시간의 선후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and의 빈도수가 특히 높았고, 지속전완은 시간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while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인과는 지속전완에서 많이 나타난 while의 빈도수가 높음과 동시에 중단전완에서 많이 나타난 and 역시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권 학습자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연결어미라는 문법항목이 없어 '-다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다가'에 대응하는 적절한 영어표현의 제시가 가능하므로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다가' 학습의 유용한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I.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고,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한 실제 ‘-다가’의 용례를 활용하여 ‘-다가’의 영어 대응 양상을 분석한 후에 그를 바탕으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류와 함께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육의 열기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¹⁾로서 연결어미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교착어는 어근(어휘적 요소)에 어미(문법적인 요소)가 달라붙어 단어나 어절이 완성되는 문법적 특징이 강하다(국립국어원, 2005c). 따라서 교착어인 한국어 문법의 많은 부분, 곧 높임법, 시제, 양태, 문장의 유형, 문장의 확대 등이 주로 어미에 의해 실현된다(구본관 외, 2015:200). 그중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복합문을 만들고, 그 연결된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한국어로 대화할 때 연결어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결어미는 그 수가 많고, 각각의 연결어미가 서로 비슷한 기

1) 언어는 유형론적 관점에 따라 교착어(첨가어), 굴절어, 고립어, 포함어로 나뉜다.

- 교착어: 어휘적 요소에 문법적인 요소를 덧붙여 단어나 어절을 만드는 언어
- 굴절어: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가 녹아 붙어서 이들을 분석하기 어려운 언어
- 고립어: 접사나 조사, 어미 등의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어 그 자체로 낱말이 되는 언어
- 포함어: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나 형용사 등이 접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언어
(국립국어원, 2005b)

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저마다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어서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가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은경, 2000).

영어는 굴절어로서, 한국어와 달리 연결어미라는 문법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접속사로 문장을 연결한다. 이러한 양 언어 간의 차이로 영어권 학습자가 연결어미로 연결된 한국어 문장을 접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결어미와 관련된 외국어 대조 연구는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에 국한되어 있다(진염민, 2013). 이는 이전에는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온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나 2021년 <법무부>의 한국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국적의 영어권 외국인 수는 182,988명으로 과거 2010년에 비해 그 수가 2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고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의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²⁾

영어와 한국어와 같이 언어 간 차이가 큰 이유에서 오는 언어 습득의 어려움을 대조언어학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가 학습 대상 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즉 모국어의 간섭 때문이라고 보았고 언어 간 차이가 클수록 간섭이 심해진다고 하였다.³⁾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를 과학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곧, 두 언

2)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 -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어권 외국인의 수는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2020년에 그 수가 약간 감소하였고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3) 학습자의 모국어가 학습 대상 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전이라고 하고, 전이는 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 무전으로 나뉜다. 긍정적 전이인 유용은 학습 내용이 두 언어에서 같을 때 일어나고, 부정적 전이인 간섭은 두 언어가 연관은 있으나 다를 때 일어나며, 무전이는 학습 내용이 두 언어에서 전혀 관련성이 없을 때 일어난다. 대조 분석 가설에서는 이들 중 학습의 장애 요인이 되는 간섭을 제일 중요하게 다룬다(허용, 김선정, 2013:8).

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오류를 예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허용 외, 2013:4).⁴⁾⁵⁾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언어 간 대응형 설정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이해 필요한 것이 병렬말뭉치이다(신자영, 2010). 병렬말뭉치는 한 언어의 원문텍스트와 그 텍스트에 대한 하나 이상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문단, 문장, 단어 등의 언어 단위로 정렬하여 구축한 말뭉치로서 실제 텍스트에서 언어 간 대응 관계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실제 언어 사용을 위한 교육 자료로 특히 효용성이 높다(유현경 외 2010, 민경모 2020). 즉, 언어의 차이로 인해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병렬말뭉치를 활용하여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 분석하고 그들의 오류를 예상 및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⁶⁾

연결어미 중 ‘-다가’는 한국어 교육의 초·중급 단계에서 학습하는 연결어미로 국어국립원(2005a)이 발표한 <현대 국어 사용 빈도조사2>에서 연결어미 총 427개 중 16위의 사용빈도수를 차지한, 구어체와 문어체 등 일상 생활에서 두루 쓰이는 중요한 연결어미이다.⁷⁾⁸⁾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
- 4) 대조언어학에서 대조분석적 연구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언어의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모델을 사용하여 대조하는 것을 말한다. 둘이나 그 이상의 언어를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 언어 간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다 다루지만 차이점에 더 주안점을 둔다(강현화 외, 2003:29).
 - 5) 목정수(2003)는 한 언어에 대해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국어와 외국어를 비교해 보는 대조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고, 김미형(2009)은 한 언어의 특징을 연구할 때 다른 언어 특징과 견주어 분석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언어적 특징을 규명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 6) 허용, 김선정(2013)은 대조언어학의 효용성에 대해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두 언어 간의 지식을 비교하며 학습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되어 학습적 오류를 줄일 수 있고, 교사의 경우는, 대조언어학적 지식을 기초로 함으로써 수업 시 제시 순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학생의 오류 수정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 7) 국립국어원(2005a)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은 2002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필요

학습자·교사 모두 ‘-다가’의 학습과 교수에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데 이는 ‘-다가’가 가진 복잡한 문법적 특징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 가. 밥을 먹다가 엄마가 불러서 밖으로 나갔다.

나. 밥을 먹다가 문득 네 생각이 났다.

다. 밥을 빨리 먹다가 체했다.

(1)은 모두 밥을 먹는 행위 도중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연결어미 ‘-다가’로 후행절이 연결되지만 각각의 문장에서 ‘-다가’가 가지는 의미기능은 다르다. (1 가)은 밥을 먹는 행위가 멈춘 후에 밖으로 나갔고 (1 나)는 밥을 먹는 행위가 네 생각을 할 때도 이어지며 (1 다)는 밥을 빨리 먹은 행위가 체한 결과로 나타났다. (1 가)과 (1 나)은 둘 다 후행절에서 행위가 전환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1 가)은 선행절의 행위가 중단된 중단전환을 나타내고 (1 나)은 선행절의 행위가 후행절에서도 지속되는 지속전환을 나타낸다. (1 다)은 선행절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후행절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의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즉, 세 가지 ‘-다가’의 예는 모두 사건의 전환을 나타내지만 각각이 가지는 문맥적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처럼 ‘-다가’는 의미기능의 분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연결어미이므로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한국어 학습자가 이를 제대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한 단계별 어휘 목록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150만 어절의 문헌 자료에 대해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현대국어사용 빈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후 2005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을 위한 단계별 어휘를 선정하기 위해 총 3백만 어절의 규모의 국어 문헌 자료로 <현대국어사용 빈도2>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어절 규모의 차이 및 장르 구성비와 표본 크기를 더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현대국어사용 빈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이다.

8) 이은경(1999)은 구어체와 문어체 각각 36,000어절 분량의 자료 텍스트에서 30개의 연결어미의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그중 ‘-다가’는 구어체에서 빈도수 73회로 8순위, 문어체에서 빈도수 65회로 9순위를 차지하였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윤기(2009)는 연결어미 ‘-다가’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에서 선행절의 상적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연결어미들 중 하나로, 선행절에 주로 ‘지속성’을 가진 동사만이 결합되는 의미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⁹⁾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처럼 연결어미에 선행 결합하는 동사가 의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며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연결어미의 의미적 특성 제시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교재에서 ‘-다가’의 의미적 제약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¹⁰⁾ ‘-다가’의 통사적 제약 역시 ‘-다가’가 가지는 의미기능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국어 교재에는 ‘-다가’의 중심의미인 전환에만 맞춘 통사적 제약이 제시되고 있고 그마저도 일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는 <연세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어있는 ‘-다가’의 문법 설명이다.

[표1] <연세 한국어>에 제시된 연결어미 ‘-다가’의 문법 설명과 예문

<p><문법 설명></p> <p>It is used together with an action verb and it shows a new performance takes place without the action of the verb completed. For instance, if you got the phone at the time of eating the meal, you may say,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The subjects from the first and the second clauses are the same because a person does the both actions.</p>
<p><예></p>

9) 홍윤기(2009)는, 연결어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연결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그 의미만을 가르치게 되면 정작 연결의 핵심이 되는 연결어미와 선행절 간의 결합에는 소홀할 수 있고 선행절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결합의 가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고 하며 선행 동사구의 상적 의미에 따라 연결어미의 결합이 제약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10) 백봉자(2006)만이 ‘-다가’가 가지는 지속성의 특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잠을 자다가 깬어요. I got up while I was sleeping.
- 운동을 하다가 쉬고 있어요. I am taking a rest from working out.
- 영화를 보다가 재미없어서 나왔어요.
I stopped watching tie movie and left because it was not interesting.
- 하숙집에 살다가 기숙사로 이사했어요.
I moved to a dormitory after living in a boarding house a while there.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7)

위와 같이 <연세한국어>는 ‘-다가’의 문법 설명으로 “‘-다가’는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남을 보여준다.”라고 하며, 네 가지 예문 모두 선행절의 행위가 중단된 후에 후행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중단전환의 의미기능에 해당되는 예만을 수록하였다. 또한 ‘-다가’의 통사적 특성으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동일하다.”라고 하며 ‘-다가’의 주어 일치 제약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교재는 ‘-다가’의 다양한 의미기능이나 ‘-다가’가 가지는 의미적 제약, 그리고 의미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통사적 제약 등 ‘-다가’의 특성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어 한국어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어미 ‘-다가’의 교수·학습을 위한 보다 명확한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¹¹⁾

한국어 학습자의 대부분은 중·고급 단계에 이르러서도 한정된 연결어미 몇 개만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¹²⁾ 한국어 학습자들이 ‘-다가’를 ‘-고’,

11) 대표적으로 <연세 한국어>교재를 예로 들었으나 4장에서 살펴볼 ‘-다가’의 교육자료 분석에서 ‘-다가’를 다룬 다른 여러 교재 등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2) 남수경, 채숙희(2004:16)는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양상 조사에서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빈도수가 가장 높은 세 연결어미, ‘-고’, ‘-아/어서’, ‘-(으)면’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고, 류선영(2006) 역시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양상 조사에서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28개의 다양한 연결어미를 학습했지만 한정된 연결어미, 즉 ‘-고’, ‘-아/어서’, ‘-(으)면’, ‘-(으)ㄴ/는데’, ‘-지만’, ‘-(으)니까’, ‘-(으)면서’만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 연결어미 사용의 76.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으)ㄴ/는데’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대치오류를 보이거나, 초·중·고급 단계에서 ‘-다가’의 오류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¹³⁾¹⁴⁾ 다음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수록된 모국어가 영어인 학습자가 일으킨 ‘-다가’오류의 예들이다.¹⁵⁾ 총 11건의 ‘-다가’ 오류 중에서 9건이 다른 연결어미와의 대치오류로 나타났다.¹⁶⁾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 (2) ㄱ. 이 만두를 바로 먹지 말고 너무 뜨거워서 좀 *기다리고(✓기다리다가) 양념간장에서 찍고 드세요.(미국, 4급)¹⁷⁾
- ㄴ. 제가 급한 성격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해 *보면(✓보다가) 바로 직접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제가 포기하는 편이다. (미국, 6급)
- ㄷ. 하지만 한 시 이후에 들어오면 별점 받으니까 그냥 5시까지 *기다려서(✓기다리다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4급)

(2 ㄱ)은 연결어미 ‘-고’와의 대치오류를 보인 경우이고, (2 ㄴ)은 ‘-면’과의 대치오류를, (3 ㄷ)은 ‘-어서’와의 대치오류를 보인 경우이다. ‘-다가’와의 대치오류를 보인 이 세 가지 연결어미들은 앞서 밝힌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연결어미들이고, 기존에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진 연결어미들이다. 한국어 학습자의 이러한 한정된 연결어미와의 대치

13) 류선영(2006)은 연결어미의 오류빈도 조사에서 ‘-다가’는 14위로 나타났고, ‘-고’, ‘-(으)ㄴ/는데’ ‘-자’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대치오류를 보였다고 하였다.

14) 이정희(2002)는 한국어 학습자의 초·중·급 각각의 단계에서 연결어미 오류율을 조사했는데, ‘-다가’는 초급에서 23.5%, 중급에서 4.9%, 고급에서 15.9%의 오류율을 보였다.

15)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 <https://kcorpus.korean.go.kr/>

16) ‘-다가’의 오류 11건 중에서 1건은 오형태 오류, 1건은 우문맥 없음, 나머지 9건은 대치오류로 나타났다.

17) 괄호 안은 학습자의 국적과 한국어 급수이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상위 빈도수인 연결어미뿐 아니라 ‘-다가’를 비롯한 다양한 연결어미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고,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한 실제 ‘-다가’의 용례를 활용하여 ‘-다가’의 영어 대응 양상을 분석한 후에 그를 바탕으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선행연구 검토 및 필요성

연결어미 ‘-다가’는 의미적·통사적 특성이 복잡한 문법 항목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이를 ‘-다가’의 국어학적 관점에 따른 논의, 한국어 교육학적 관점에 따른 논의, 그리고 ‘-다가’의 연구방법별 논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가’의 국어학적 관점에 따른 논의는 ‘-다가’의 의미 기능, 통사적 특성을 기술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가’의 의미기능은 중심의미와 문맥적 의미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르고 통사적 제약 역시 차이를 보인다.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다가’의 국어학적 관점에 따른 논의에는 최현배(1965), 성낙수(1976), 김문용(1982), 최재희(1991), 이은경(2000), 노마 히데키(2002), 이기갑(2004), 윤평현(2005), 백낙천(2003), 이숙(2006), 김준기(2010), 요시모노 하지메(2012) 등이 있다.

‘-다가’에 대해 최초로 논의한 최현배(1965)는 ‘-다가’를 ‘닥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여태까지 하던 움직임을 그치고, 다른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꼴’이라고 정의하며 [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성낙수(1976)는 ‘-다가’의 의미적인 해석과 문맥에서의 제약관계에 대해

살폈다. 종래의 연구에서 ‘-다가’의 의미로 중단형이라고 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가’의 의미로 부가성과 우연성을 들었고 ‘-다가’의 문맥 제약으로 행위자의 동일성, 동사구의 동일성, 동사의 지속성, ‘-겠’의 상위 구조, 동사 ‘하다’로의 대치를 들었다. ‘-다가’의 문맥 제약으로 동사의 지속성을 들며, 이에 대해 ‘-다가’와 결합하는 동사들은 동작동사이면서 지속적인 동사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상태동사와 지정사일 때도 마찬가지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거나 지정사이더라도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다가’의 문장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문용(1982)은 ‘-다가’의 의미기능은 기존에 제시되었던 중단과 전환뿐 아니라 교체, 동시병렬, 인과관계도 포함된다고 하며 이 모든 ‘-다가’의 의미에 대하여 [-에견적]이라는 의미자질이 내포되어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가’는 자립형식의 언어 단어(의미기능어)가 문법화 과정(허사화)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디부터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던 형식 형태소였음을 고대국어의 용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주장하였다.

최재희(1991)는 접속문의 구성을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나누고, 종속접속문의 전환관계 접속어미로 ‘-다가’를 설정하였다. ‘-다가’의 통사 특성과 의미를 기술하였는데 통사 특성으로 주어의 동일성 제약, 동사 제약, 시상 제약, 서법 제약을 들었고, ‘-다가’의 관계 의미로 전환성을 규정하였다. S1의 행위나 상태가 S2의 국면으로 바뀌는 관계를 형성하는 접속문에 연결어미 ‘-다가’가 선택된다고 하였다.

이은경(2000)은 연결어미를 통사적인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그 중에서 접속의 기능을 하는 절-연결 어미로 이어진 선행절과 후행절의 통사적 관계를 살피고, 연결어미로 이어진 절과 절의 의미론적 관계를 체계화 하였다. 이은경(2000)은 기존 연구에서 ‘-다가’로 연결된 문장의 의미관계를 전환이나 중단 등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다가’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보며 ‘-다가’의 선행절의 행위는 후행절의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가’를 시간과 관련된 접속 구성인 선행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선·후행절의 사태가 계기적으로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사태의 전환이라는 의미도 함께 나타난다고 하였다.

노마 히데키(2002)는 ‘-하다가’, ‘-했다가’, ‘-해다가’를 하다가류로 칭하여 각각을 분석하며 ‘-다가’와 결합하는 용언은 상적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말뭉치 분석을 통해 ‘-다가’와 결합하는 용언과 非‘-다가’와 결합하는 용언을 밝혀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가’에 선행하는 용언은 ‘-하고 있다’와 결합하는 용언과 일치한다는 분석결과를 보이며 ‘-다가’의 의미는 ‘-하는 도중에’와 같이 일정한 시간적인 폭을 가진 동작의 중단, 다른 동작으로의 이행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적용되는 용언의 어휘적인 의미 역시 일정한 시간적인 폭을 가진 동작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다가’(하다가)의 의미용법에는 taxis¹⁸⁾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며 [중단], [중도]와 [가정조건]의 taxis로 나누었고 ‘-다가’에 선행하는 용언으로 ‘하다’, ‘그러다’와 의지동사 및 동작동사 등이 텍스트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언어사실주의에 입각하여 단편소설, 희곡, 평론, 비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대본에서 추출한 ‘-다가’의 실제 용례를 바탕으로 ‘-다가’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기갑(2004)은 ‘-다가’의 제약을 살핀 후에 ‘-다가’의 원초적 의미로 전환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나열, 인과, 조건, 열거로 의미가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의미 확대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전환에서 나열로, 두 번째는, 전환에서 인과로, 인과는 다시 조건의 방향으로 용법이 발달한다. 이

18) Taxis란 복수의 사태를 시간순 배열 가운데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문법개념으로서 R. Jakobson이 최초로 문법론에 도입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마 히데키, 2006:239).

기갑(2004)은 ‘-다가’의 이 네 의미에 따른 의미적 특징과 이와 같이 의미가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다가’의 여러 가지 의미용법을 의미 확대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논의로서 의의가 있다.

윤평현(2005)은 전환관계 접속어미를 ‘-다가’로 설정하고 통사적 특성, 의미 기능, 의미 특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통사적 특성에서 주어 또는 동일 서술어 제약이 ‘-다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라 하였고 그 외에 시상어미 제약, 후행절 서술어 제약을 제시하였다. ‘-다가’의 중심의미를 전환으로 삼고 그것을 선행절의 동작이 진행 중인 것과 이미 완료된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렇게 구분한 진행과 완료의 선행절 사태는 다시 중단 또는 지속의 양태를 가지고 후행절 사태로 전환한다. ‘-다가’의 의미 특성은 전환의 의미와 함께 문맥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중단, 중첩, 원인, 조건, 시중, 대조, 반복의 의미를 가진다.

백낙천(2003)은 연결어미 중에서 형태론적 구성에 특이함을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법적 특징을 구성 요소의 형태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국어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다가’에 대해서 ‘-다’와 ‘-다가’가 일부의 관용적 표현이나 반복 구성, 보조사의 결합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의 유무에 의한 것이므로 ‘-다’와 ‘-다가’는 별개의 접속어미로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숙(2006)은 기존에 ‘-다가’의 의미가 다양하게 분석되는 것은 ‘-다가’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문맥적 의미에 더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하며, ‘-다가’가 여러 통사 범주에 나타나고 각 범주의 용법에 독특한 속성을 보이는 것은 본질적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다가’의 의미를 [중단]과 [전환]으로 본 것은 ‘-다가’의 속성에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먼저, ‘-다가’의 어휘적 의미에서 [중단]이나 [전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다가’의 의미를 [중단]과 [전환]으로 본다는 것은 ‘-

다가'의 앞, 뒤 문장의 의미 관계를 대등적 관계로 분석한 것인데 '-다가'로 연결되는 문장은 대등적 관계가 아닌 종속 접속절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에 이숙(2006)은 '-다가'의 어원인 '다그다'에 "이동"의 속성이 있음을 제시¹⁹⁾하며 '-다가'의 의미적 특성이 여러 통사 범주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든지 '다그다'에서 파생된 '이동, 접근, 놓여짐'의 의미가 반영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연결어미 '-다가'의 선행절은 후행절의 사건이 "놓여지는 배경"으로, '-다가'의 기본의미는 [놓임]이고, 기존의 연구에서 '-다가'의 의미로 제시한 [중단]이나 [전환], [조건], [인과] 등은 선·후행절의 문맥적 의미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준기(2010)는 '-다가'의 중심의미를 전환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의 의미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각각의 의미 특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중단전환을 중도전환과 종료 전환으로, 지속전환을 동시전환과 계기전환으로 나눈 것이다. '-아서/-니까', '-면서', '-면' 등의 다른 연결어미와의 비교를 통해 '-다가'의 의미 특성을 보다 세세하게 기술하였다.

요시모토 하지메(2012)는 '-다가'가 쓰인 문장들을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 따라 분류하여 문맥적 기능과 문법적 제약을 기술하였다. '-다가'의 핵심적 기능을 전환]이라고 보고 '-다가'가 쓰인 문장들을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 따라 [전환], [도중], [인과], [조건]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 관용표현으로 [양보], [나열], [결과]를 제시하며 문맥적 기능을 살폈다. '전환'을 핵심적 기능으로 본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다가'의 핵심적 기능인 접근]과 [부가성] 등은 '다그다', '다가'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고 '-

19) 이숙(2006)은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그다'의 의미는 '어떤 방향으로 가까이 옮기다, 어떤 일을 서두르다'이나 이것으로는 '다그다'의 기본적 의미 특성이 밝혀지지 않아 '다그다' 문장들을 살펴 "다그다"로 기술되는 움직임에는 동작의 대상체가 기준체에 가까워지는 '이동'의 개념이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다가’, ‘-에다가’, ‘-으로다가’까지 통틀어서 공통된 기능을 찾으려고 한 것인데 이것은 연결어미 ‘-다가’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앞서 이숙(2006)이 ‘-다가’의 어원을 ‘다그다’로 보고 ‘-다가’의 여러 용법을 통합적으로 논의한 것과 대치되는 의견이다.

‘-다가’의 한국어 교육학적 관점에 따른 논의에는 홍윤기(2009), 이슬비(2014), 박종호(2015), 요외(2016), 이회환(2018) 등이 있다. ‘-다가’의 한국어 교육학적 관점에 따른 논의는 다수가 ‘-다가’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고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 등을 분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다가’의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학적 관점에 따른 논의와의 차이점은 몇몇의 연구에서 ‘-다가’의 특성 중 하나로 ‘-다가’와 결합하는 용언의 품사류 뿐 아니라 ‘-다가’와 결합하는 용언이 가진 상적의미인 지속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⁰⁾

홍윤기(2009)는, ‘-다가’를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에서 선행절의 상적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연결어미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다가’에 선행하는 용언은 지속성이라는 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홍윤기(2009)는 [+지속성]은 내부단계가 지속성을 가질 때, 내부단계 이전의 예비적 단계가 지속성을 가질 때, 순간적인 내부단계가 반복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 결과적 단계가 지속성을 가질 때, 상태의 지속성을 나타낼 때의 5가지 지속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슬비(2014)는 ‘-다가’의 상적 의미에 집중하여 현대 문어 소설 말뭉치에서 ‘-다가’와 결합하는 용언과 상적 의미를 살폈다. ‘-다가’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의미기능뿐 아니라 선행 사건의 특정 국면을 강조하는 상적 기능을 가짐을 강조하며 ‘-다가’와 ‘-왔/었다가’의 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20) 국어학적 관점에 따른 ‘-다가’의 논의나 문법서, 한국어 교재 등에는 ‘-다가’에 결합하는 용언에 대하여 품사류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백봉자(2013)만 유일하게 ‘-다가’의 특성으로 ‘동작의 지속성이 있는 동사하고만 어울린다’라고 제시하였다.

로 ‘-다가’의 의미기능과 선행 용언 제약에 대한 교육 문법 내용을 제시하였다. 노마 히데키(2002)와 마찬가지로 ‘-다가’와 자주 결합하는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 동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다가’와 결합하는 용언들의 상대적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다가’와 결합하는 동사로는 ‘보다’, ‘바라보다’, ‘지켜보다’ 등의 ‘보다’류 동사를 제시하였다.

박종호(2015)는 한국어 문법서와 사전류를 분석하여 ‘-다가’의 중심 의미와 의미 양상을 유형화하고, 한국어 교재의 기술 내용을 살펴어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의 특성을 주어 일치 여부, 문장 종결, 부정문 제약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이와 함께 ‘-다가’로 연결되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행위 내지 사태가 어떤 시간적 특성으로 연결되는지 상적 속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가’의 기술 모형과 교수·학습에 쓰일 수 활동지를 제시하였다.

요외(2016)은 ‘-다가’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살핀 후에 ‘-다가’ 문장의 선행절 제약 조건과 후행절의 의미와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가’의 기본 의미를 부가로 보았고, ‘-다가’ 문장의 의미 생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제약 조건은 선행절에 나타나는 동사의 결과성 유무와 시제 어미 ‘-었’과의 결합여부라고 주장하며 선행절의 결과성 유무와 ‘-었’과의 조합에 따라 후행절에 의미 양상이 다름을 제시하였다. ‘-다가’구문의 선행절에 나타나는 동사는 동작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순간성 동사라도 결과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가’와 결합이 가능하고, 또 순간성 동사이고 결과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태성을 가지면 ‘-다가’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회환(2018)은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서 ‘-다가’의 의미 기능과 문법적 특성이 어떻게 제시되어있는지 살핀 후에 [전환]의 ‘-다가’와 [인과]의 ‘-다가’를 구분하여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을 지적하며 [전환]과 [인과]의 ‘-다가’에 대한 공통 특성과 개별 특성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가’의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회환(2018)은 ‘-다가’의 의미기능 중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을 나누어 교육하는 것에 대해 숙달도가 낮은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중단성과 지속성은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가 선행절의 행위가 지속되는지 중단되는지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다가’의 연구방법별 논의를 살펴보겠다. 한국어 교육의 ‘-다가’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가의 교육현황 분석을 통하여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에 ‘-다가’의 의미 확장을 다룬 논의, 언어권별 대조연구 등이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가’의 교육현황 분석을 다룬 논의에는 석명도(2017), 팽향(2017), 양양(2018), 최소정(2020) 등이 있다. 석명도(2017)는 연결어미 ‘-다가’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살피고 ‘-다가’의 인식 조사, 사용 오류 분석, 교재 분석 등의 교육현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다가’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팽향(2017)은 학부 유학생의 글쓰기에 나타난 ‘-다(가)’, ‘-었다가’, ‘-다가’ 관련 표현의 사용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인 학습자의 ‘-다(가)’, ‘-었다가’의 사용능력을 분석하였다. 양양(2018)은 ‘-다가’와 ‘-다’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제약을 살피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한국어 TOPIC 능력 시험 교재를 분석하며 ‘-다가’, ‘-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핀 후에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다가’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소정(2020)은 연결어미 ‘-다가’와 ‘-었다가’의 의미적 기능과 의미별 통사적 특징에 대해 살피고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다가’와 ‘-었다가’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가’의 의미의 확장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는 이세진(2018) 등이 있다. 김세진(2018)은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에 대해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로 나

누어 제시하고 그 의미들의 확장 과정과 의미망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다가’의 언어권별 대조연구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남영복(2015)과 신미선(2019)이 있다. 남영복(2015)은 ‘-다가’의 의미를 전환, 원인, 근거, 조건, 대조, 반복으로 분류하여 ‘-다가’ 일본어 대응양상을 살폈고, 신미선(2019)은 ‘-다가’의 의미를 중단 전환, 지속병행전환, 인과전환으로 분류하여 ‘-다가’의 일본어 대응양상을 살폈다.

이상으로 ‘-다가’의 기존 논의를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다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여전히 ‘-다가’의 의미기능은 하나로 체계화되지 못한 실정이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다가’ 연구는 교육현황 분석에 치우쳐져 있다. 특히 언어권별 대조 연구는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2건이 전부로,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다가’의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아쉬운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가’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고 ‘-다가’의 의미기능을 유형화 할 것이다.

둘째, 한·영 말뭉치에서 추출한 ‘-다가’의 실제 용례를 활용하여 ‘-다가’의 영어 대응 양상을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²¹⁾ 이는 연결어미라는 문법항목이 없어 ‘-다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다가’에 대응하는 적절한 영어

21) 본고는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다가’의 용례를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노마 히데키(2002), 요시모토 하지메(2012) 등과 같이 언어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다가’ 용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학습자가 보다 사실적이고 정확한 언어 구사를 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표현의 제시가 가능하므로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다가’ 학습의 유용한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고,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한 실제 ‘-다가’의 용례를 활용하여 ‘-다가’의 영어 대응 양상을 분석한 후에 그를 바탕으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연구 내용

각 장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겠다.

2장에서는 ‘-다가’가 가지는 특성을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전과 문법서, 그리고 기존 연구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을 고찰한 후에 그것을 종합하여 ‘-다가’의 의미기능을 유형화 할 것이고, 또한 다가와 결합하는 동사가 가지는 의미적 제약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다가’의 통사적 특성은 의미기능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통사적 특성을 의미기능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다가’의 영어대응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서 나타날 ‘-다가’의 영어 대응 표지를 한영사전을 통해 미리 살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기술하고, 한·영 병렬말뭉치에서 추출한 ‘-다가’의 실제 용례를 활용하여 ‘-다가’의 영어 대응 양상을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4장에서는, ‘-다가’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기 앞서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을 살펴서 ‘-다가’의 학습단계 및 교육 과정을 검토하고, 또한 ‘-다가’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다가’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살펴볼 것

이다. 그 결과를 3장의 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다가'의 수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술할 것이다.



II. 연결어미 ‘-다가’의 특성

이 장에서는 ‘-다가’가 가지는 특성을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가’의 의미적 특성으로 ‘-다가’의 의미기능과 의미적 제약을 살펴볼 것이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기존 연구에서 ‘-다가’는 의미기능이 확립되지 못하였으므로 사전과 문법서, 그리고 기존 연구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을 고찰한 후에 그것을 종합하여 ‘-다가’의 의미기능을 유형화 할 것이다. 또한 다가와 결합하는 동사가 가지는 의미적 제약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다가’의 통사적 특성은 의미기능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통사적 특성을 의미기능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다가’의 의미적 특성

2.1.1 ‘-다가’의 의미기능²²⁾

사전과 문법서 그리고 선행연구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을 살피고 그것을 종합하여 ‘-다가’의 의미기능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먼저 사전과 문법서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한국어 표준문법(2018:203)에서는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 구성요소는 어미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구성요소는 어간이라고 하였다. 어미는 실제적 의미가 들어있는 실질 형태소가 아닌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연결어미 ‘-다가’ 역시 형식 형태소로, 실제 의미는 없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관계에 따라 의미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의미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각 사전과 문법서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과 그 제시 순서, 의미기능 중복도, 개별적으로 나타난 특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석한 사전과 문법서는 국어사전 3종, 한국어 문법서 4종으로 총 7종이며 다음과 같다.

<분석한 사전과 문법서의 목록>

[표 2] 분석한 국어사전 3종

no.	출판사	제 목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이하 고려대 한국어)
2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이하 표준 국어)
3	두산동아 사서편집국(1998)	『연세 한국어 사전』, 서울: 두산동아. (이하 연세 한국어)

[표 3] 분석한 한국어 문법서 4종

no.	출판사	제 목
1	강현화 외(2016)	『한국어 교육 문법: 자료편』, 서울: 한글파크, (이하 교육 문법)
2	국립국어원(2005c)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용법 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하 한국어 문법)
3	국립국어원(2005c)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서울: 도서출판 하우. (이하 문법 사전)

4	이희자, 이종희(2010)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이하 어미·조사 사전)
---	----------------	--

먼저 사전 3종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을 살펴보겠다.

『고려대 한국어』

1. 어떤 동작이 그치고 다른 행위로 넘어감을 나타내는 말.
2. 어떤 동작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다른 행위가 벌어짐을 나타내는 말.
3. 어떤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됨을 나타내는 말.

『표준국어』

1. 어떤 동작이나 상태 따위가 중단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내는 말.
2.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 원인이나 근거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말.
3.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 번갈아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

『연세 한국어』

1. ㄱ. 어떠한 행위가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그 행위를 그치고 다른 행위로 옮겨감을 나타내는 말.
 ㄴ.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그것이 그침을 나타내는 말.
2. 어떠한 행위가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다른 행위나 상황이 벌어짐을 나타내는 말.

3. 어떠한 상황의 전환을 나타내는 말.
4. 뒷문장의 행위를 하기 바로 전까지 어떤 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
5. 어떤 행위의 반복이나 나열을 나타냄.
6. 행위의 계속을 나타냄.
7.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
8. 조건을 나타내는 말.

3종의 사전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세 사전 모두 의미기능 중 어떤 동작이 그치고 다른 행위로 넘어감을 나타내는 중단전환을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 외 전환의 의미기능으로 『고려대 한국어』는 어떤 동작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다른 행위가 벌어짐을 나타내는 말인 지속전환을 제시하였고 『연세 한국어』는 지속전환 외에도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그것이 그침을 나타내는 말인 무효화전환을 제시하였다. 전환 외의 의미기능으로는 세 사전 모두 어떤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 번갈아 일어남을 나타내는 반복을 제시하였고, 『고려대 한국어』를 제외한 『표준 국어』와 『연세 한국어』의 두 사전에서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나 원인이 되는 경우인 인과의 의미기능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다가’의 의미기능을 가장 다양하게 제시한 『연세 한국어』는 행위의 지속, 계속, 조건 등의 의미기능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를 해 보면 3종의 사전에 나타난 ‘-다가’의 의미기능의 중복도는 중단전환> 반복> 인과=지속전환> 조건의 순이다.

다음은 문법서 4종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을 살펴보겠다.

『교육 문법』

1. 행위 또는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행위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내는 말.
2. 원인, 근거 - 앞선 행위나 상태가 뒤에 벌어지는 부정적인 상황의 원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한국어 문법』

1. 어떤 행위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행위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내는 말.
2. 앞선 행위나 상태가 뒤에 벌어지는 부정적인 상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3.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 번갈아 가며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
4. 행위의 지속을 통해 강조함을 나타내는 말.
5. 어떤 행위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
6.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거나 새로운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

『문법 사전』

- 선행절의 행위에 다른 동작을 부가하는 뜻이 있다
1. 단순히 동작의 전환을 나타내는 경우.
 2. 행 동작과 후행 동작이 인과적인 경우.
 3. 시간에 따른 상황의 전환을 나타내는 경우.

『어미·조사 사전』

- 상황의 중단, 전환을 나타냄.
1. 가. 어떠한 행위가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그 행위를 그치고 다른 행위로 옮겨감을 나타내는 말.
 - 나.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그것이 그침을 나타내는 말.
 - 다. 어떠한 행위가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다른 행위나 상황이 벌어짐을 나타내는 말.
 - 르. 어떠한 상황의 전환을 나타내는 말.
 - 목. 뒷문장의 행위를 하기 바로 전까지 어떤 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
 2.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는 말.
 - 가. 두 가지 사실이 번갈아 있음을 나타내는 말.
 - 나. 행위의 계속을 나타내는 말.
 3. 원인, 조건, 근거 등을 나타내는 말.
 - 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
 - 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 앞 절의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뒷 절의 결과가 생김을 나타내는 말.
 - 다. 뒷말의 근거를 나타내는 말.

살펴본 4종의 문법서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총 4종 중 3종의 문법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은 3종의 사전이 보여준 양상과 마찬가지로 중단전환이다. 『문법 사전』만 ‘-다가’의 기본적인 의미기능을 부가로 설정하고 동작전환이라는 의미기능을 첫 번째로 제시하였다. 그 외 전환의 의미기능으로 4종의 문법서 중 의미기능을 가장 세분화하여 제시한 어미조사사전에서 무효화전환, 지

속전환이 제시되었고 문법사전에서 시간에 따른 상황의 전환을 나타내는 시간전환이 제시되었다. 각 사전이 대부분 두 번째로 제시한 ‘-다가’의 의미 기능은 인과이다. 인과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교육문법>과 <한국어 문법>은 뒤에 벌어지는 “부정적인 상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전환과 인과 외의 의미기능으로 각 사전들은 반복, 조건, 강조 등의 의미기능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4종의 문법서에 나타난 ‘-다가’의 의미기능의 중복도는 중단전환> 인과> 반복> 조건 순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전과 문법서 총 7종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4] 사전과 문법서 7종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 중복도

no.	이름	부가	전 환			인과	반복	조건
			중단 전환	지속 전환	무효화 전환			
1	고려대한국어		○	○			○	
2	표준국어		○			○	○	
3	연세한국어		○	○	○	○	○	○
4	한국어교육문법		○			○		
5	한국어문법		○			○	○	
6	문법사전	○	○	○		○		

7	어미·조사사전		○	○	○	○	○	○

사전과 문법서 총 7종에 제시된 ‘-다가’ 의미기능의 중복도를 살펴보면 모든 사전과 문법서에 제시되어 있는 중단전환의 의미기능이 중복도가 가장 높았고 <고려대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사전과 문법서에 제시된 인과의 의미기능이 두 번째로 중복도가 높았다. 그 뒤로는 반복, 지속전환, 무효화전환, 조건의 의미기능 순으로 중복도가 나타났다. 또한 <문법사전>을 제외한 5종의 사전과 문법서에서 ‘-다가’의 의미기능 설명의 상위에 전환과 관련된 의미기능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가’의 중심의미는 전환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환의 의미기능 안에서는 중단전환> 지속전환 > 무효화전환의 순으로 중복도가 나타났으므로 전환의 의미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중단전환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체 의미기능에서 두 번째의 중복도를 차지한 인과의 의미기능 역시 ‘-다가’의 의미기능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보면 총 7종의 사전과 문법서에 제시된 ‘-다가’ 의미기능의 중복도는 중단전환>인과>반복>지속전환>무효화전환, 조건 순이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행연구에서 ‘-다가’의 의미기능은 크게 중심의미와 문맥적의미로 나뉜다. ‘-다가’의 중심의미는 크게 중단과 전환, 부가로 나뉘고 문맥적 의미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학자별로 간단히 살펴보고 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현배(1965)는 ‘-다가’를 ‘닥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여태까지 하던 움직임을 그치고, 다른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꼴’이라고 정의하며 [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성낙수(1976)는, ‘-다가’의 의미를 부가성과 우연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김문웅(1982)은 ‘-다가’의

의미기능은 기존에 제시되었던 중단과 전환뿐 아니라 교체, 동시병렬, 인과 관계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장광군(1999)은 ‘-다가’의 핵심의미는 계기이고, 앞뒤절의 두 동작의 관계에 따라 전환과 중첩으로 나뉘며, 또 두 동작의 진행상태에 따라 완료와 중단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이은경(2000)은 ‘-다가’를 독립적인 의미 범주로 설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시간 관계 속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다가’ 문장에서 선행절의 행위는 후행절의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일어난 일이므로, 시간과 관련되는 접속 구성이라 하였다. 노마 히데키(2002)는 ‘-다가’(하다가)의 의미용법에는 taxis²³⁾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며 이른 선행의 변종인 중단, 중도와 가정조건의 taxis로 나누었고. 이기갑(2004)은 전환을 ‘-다가’를 원초적 의미로 설정하고 이로부터 나열, 인과, 조건, 열거로 의미가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윤평현(2005)은 ‘-다가’의 중심의미를 전환으로 삼고 그것을 선행절의 동작이 진행 중인 것과 이미 완료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렇게 구분한 진행과 완료의 선행절 사태는 다시 중단 또는 지속의 양태를 가지고 후행절 사태로 전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환의 의미와 함께 문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가’의 다른 의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중단, 중첩, 원인, 조건, 시종, 대조, 반복의 의미를 가진다. 김준기(2010)는 ‘-다가’의 중심의미를 전환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의 의미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각각의 의미 특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4가지 유형은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을 각각 두 종류로 나눈 것인데 이는 중도전환과 종료전환, 동시전환과 계기전환이다. 요시모토 하지메(2012)는 ‘-다가’의 핵심적 기능을 전환이라고 보고 ‘-다가’가 쓰인 문장들을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 따라 전환, 도중, 인과, 조건으로 분류하였고 그 외에 관용표현으로 양보, 나열, 결과를 제시

23) Taxis란 복수의 사태를 시간순 배열 가운데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문법개념으로서 R. Jakobson이 최초로 문법론에 도입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마 히데키, 2006:239.)

하며 문맥적 기능을 살폈다. 이슬비(2014)는 ‘-다가’의 중심적 의미기능은 전환이고, ‘-다가’는 미완료 전환, ‘-았/었다가’는 완료 후 전환의 역할을 하는데 완료 후 전환은 무효화 전환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그 외 ‘-다가’의 확장된 의미기능으로서 우연적 결과 전환, 걱정, 경고 화행 기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박종호(2015)는 ‘-다가’의 중심의미를 전환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중도전환, 계기전환, 교차전환, 인과전환, 대립전환 5가지 양상으로 분류하였고, 요외(2016)는 ‘-다가’의 본질적 의미를 부가로 보고, 그 외의 의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문맥적 의미로 보고 이를 전환, 병렬, 반의관계, 인과조건, 반복, 중단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회환(2018)은 연결어미 ‘-다가’의 기본의미를 전환으로 보고 그 외에 중단, 인과, 병렬, 조건 등의 의미 관계로 선·후행절을 연결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5] 선행연구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

no.	이름	중심의미	문맥적 의미
1	최현배(1965)		중단
2	성낙수(1976)		부가성, 우연성
3	김문웅(1982)		중단, 전환, 교체, 동시병렬, 인과관계
4	장광균(1999)	계기	전환(중단전환, 완료전환), 중첩(수행중첩, 완료중첩)
5	이은경(2000)		계기
6	노마히테키(2002)		중단, 중도, 가정조건

7	이기갑(2004)	전환	전환, 나열, 인과, 조건
8	윤평현(2005)	전환	전환, 중단, 중첩, 원인, 조건, 시종, 대조, 반복 (의미기능: 진행중단, 진행지속, 완료중단, 완료지속)
9	김준기(2010)	전환	중단전환(중도전환, 종료전환), 지속전환(동시전환, 계기전환)
10	요시모토 하지메(2012)	전환	전환, 도중, 인과, 조건
11	이슬비(2014)	전환	미완료전환, 우연적 결과 전환, 걱정, 경고, 화행기능
12	박중호(2015)	전환	중도전환, 계기전환, 교차전환, 인과전환, 대립전환
13	요외(2016)	부가	전환, 병렬, 반의관계, 인과·조건, 반복·중단
14	이회환(2018)	전환	중단, 인과

연결어미 ‘-다가’를 처음으로 논의한 최현배(1965)가 ‘-다가’의 중심의미를 중단으로 설정한 것에 반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다가’의 중심의미는 전환으로 굳혀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다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다가’의 의미기능은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표를 살펴보면 다수의 학자가 ‘-다가’의 중심의미를 전환으로 보고 있고, 문맥적 의미로는 중단전환과 지속전환, 그리고 인과, 조건 순으로 중복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전과 문법서, 그리고 선행연구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을 종합하여 ‘-다가’의 의미기능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다가’의 의미기능>

1. 중단전환
2. 지속전환
3. 인과

중단전환의 의미기능은 어떤 동작이 그치고 다른 행위로 넘어감을 나타내고, 지속전환의 의미기능은 어떤 동작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다른 행위가 벌어짐을 나타내며, 인과의 의미기능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다가’의 의미기능을 위와 같이 유형화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단전환은 대부분의 사전과 문법서, 그리고 기존연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한 ‘-다가’의 핵심적인 의미기능이다. 지속 전환은 ‘-다가’의 중심의미인 전환을 세분화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의미기능으로서 중단전환과 함께 ‘-다가’의 중요한 의미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인과는 사전과 문법서, 기존연구에서 ‘-다가’의 중심의미인 전환 이외의 문맥적 의미를 거론할 때 가장 높은 빈도수로 제시된 의미기능으로 명백한 ‘-다가’의 의미기능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 ‘-다가’가 병렬(반복)이나 조건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다가-다가 (하다)’나 ‘-다가는’ 등과 같이 ‘-다가’의 복합형으로 나타나며, 병렬(반복)의 의미는 ‘-다가’의 반복 때문에 나타나고 조건의 의미는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본고의 연구대상인 ‘-다가’ 단일형의 의미기능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이회환, 2018).

2.1.2 ‘-다가’의 의미적 제약

홍윤기(2009)는, 연결어미는 서술어에 결합하는 문장 종결법, 시제, 상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다가’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에서 선행절의 상적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연결어미들 중 하나라고 하였다. ‘-다가’는 상황의 [+지속성]의 의미 특성을 가진 선행절과 결합한다는 의미적 제약을 가지는데, 그 [+지속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 속성을 포함한다.²⁴⁾

- ① 내부단계가 지속성을 가질 때
- ② 내부단계 이전의 예비적 단계가 지속성을 가질 때
- ③ 순간적인 내부단계가 반복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
- ④ 결과적 단계가 지속성을 가질 때
- ⑤ 상태의 지속성을 나타낼 때

(홍윤기, 2009)

다음은 [+지속성]의 다섯 가지 속성에 해당되는 예들이다.

- (3) ㄱ.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 ㄴ.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어요.
- ㄷ. 기차가 역에 도착하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 ㄹ. 형광등이 깜박이다가 꺼져버렸어요.
- ㅁ.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선생님께 질문하기 시작했다.
- ㅂ. 이 아이는 성장 속도가 남보다 한참 늦다가 일곱 살이 되더니 갑자기 키가 자랐다.

24) 홍윤기(2009) 외에 성낙수(1976), 이슬비(2014), 노마 히데키(2002), 요외(2016) 등이 ‘-다가’와 결합하는 용언이 가지는 상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홍윤기, 2009)

(3 ㄱ), (3 ㄴ)은 ‘-다가’의 다섯 가지 [+지속성]의 속성 중 ①에 해당되는 예로 ‘-다가’의 내부단계가 지속성을 가질 때를 의미한다. (3 ㄱ)과 (3 ㄴ)의 내부단계인 집에 가는 상황과 설거지를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3 ㄷ)은 ②에 해당되는 예로 기차가 도착하는 내부단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차가 도착하기 전의 상황, 즉 내부단계이전의 예비적 단계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3 ㄹ)은 ③에 해당되는 예로, 형광등이 깜박하는 순간적인 내부 단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3 ㅁ)은 ④에 해당되는 예로, 그가 이미 앉아 있는 상황에 이른 후의 결과적 단계가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3 ㅂ)은 ⑤에 해당되는 예로 아이의 성장 속도가 남보다 늦는 상태가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살펴본 것과 같이 ‘-다가’는 선행절에 [+지속성]을 가진 동사만이 결합되는 의미적 제약을 가진다.

2.2 ‘-다가’의 통사적 특성

‘-다가’의 통사적 특성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주어·서술어 일치 제약, 선·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문장 종결 제약이 그것이다. ‘-다가’는 의미기능별로 그 통사적 제약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통사적 제약을 앞서 유형화한 ‘-다가’의 의미기능인 전환과 인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²⁵⁾

1) 주어·서술어 일치 제약

25)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의 의미기능을 하나로 묶어 전환으로 칭한다.

연결어미 ‘-다가’구문은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 이는 ‘-다가’가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와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

(4) 가. 그는 청소를 하다가 사진첩을 발견했다.

나. 그는 청소를 하다가 나는 사진첩을 발견했다.

(4 가)은 ‘-다가’ 구문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로 문장이 자연스럽다. (4 나)은 선행절의 주어인 그와 후행절의 주어인 내가 서로 다른 경우로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로써 ‘-다가’ 구문에 주어 일치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도 옳은 문장인 경우도 있다.

(5) 가. 아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아이가) 잠이 들었다.

나.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울릉도 호박엿이 왔습니다.

다. 그들은 술에 취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우다가 그만 제풀에 꺾여 한 친구는 술상머리에서 다른 친구는 방구석에서 잠이 들었다.

르. 영호와 철이가 고시를 준비하다가 (영호가/철이가) 먼저 포기했다.

(윤평현, 2005)

(5)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네 가지 예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5 ㄱ)은 선행절의 주어인 아이가 후행절에서 생략된 경우인 이중주어구문이고, (5 ㄴ)은 후행절의 주어인 하나가 선행절의 주어인 둘의 일부인 경우이다. (5 ㄷ)은 후행절 동작의 주체인 한 친구가 선행절의 주체인 그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일한 주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5 ㄹ)은 후행절의 주어인 영호나 철이가 선행절의 복수 주어인 영호와 철이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다가’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일한 주어를 가지지 않더라도 동일한 주체를 가지면 문장이 성립된다.

‘-다가’ 구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에 동일 주어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동일 주어가 아니더라도 선행절과 후행절에 동일 서술어가 자리한다면 그 문장은 옳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 (6) ㄱ. 반장이 준비물을 알려주다가 요즘에는 부반장이 준비물을 알려준다.
- ㄴ.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지금은 온 가족이 다함께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6)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다르나 서술어가 동일한 경우로 문장이 자연스럽다.

또한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아도 옳은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 (7) ㄱ. 반장이 준비물을 알려주다가 요즘에는 부반장이 준비물을 칠판에 적어준다.
- ㄴ.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지금은 온 가족이 다함께 저

녁에 먹을 음식을 요리한다.

(7)은 (6)의 문장에서 후행절의 서술어가 조금씩 바뀐 예인데,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지만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7 ㄱ)은 선행절의 서술어인 준비물을 알려주는 행위와 후행절의 서술어인 준비물을 칠판에 적어주는 행위가 서로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7 ㄴ)은 선행절의 서술어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와 후행절의 서술어인 저녁에 먹을 음식을 요리하는 행위는 서로 다르지만 이 역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가 유사하다. 이처럼 ‘-다가’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달라도 그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문장이 성립된다.

살펴본 것과 같이, ‘-다가’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꼭 동일 주어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주체에 의한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라면 옳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이 경우 역시 서술어가 무조건 동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그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일 경우에는 옳은 문장이 된다(윤평현, 2005).

2) 선·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다가’와 결합하는 서술어 제약을 선행절과 후행절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다가’와 결합하는 선행절의 서술어 제약을 살펴보겠다. ‘-다가’와 결합하는 선행절의 서술어는 ‘-다가’가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약이 없으나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동사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다가’가 전환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예를 살펴보자.

(8) ㄱ.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갔다.

ㄴ. 날씨가 춥다가 따뜻해졌다.

ㄷ. 김씨가 선생이다가 실습 교육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성낙수, 1976)

(8 ㄱ)은 선행절의 ‘살다’라는 동사와 ‘-다가’가 결합한 경우이고, (8 ㄴ)은 선행절의 ‘춥다’라는 형용사가 ‘-다가’와 결합했으며 (8 ㄷ)은 지정사와 ‘-다가’가 결합한 경우이다. 세 경우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다가’가 전환의 의미 기능을 가질 때 ‘-다가’와 결합하는 선행절의 서술어 제약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가’가 인과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예를 살펴보자.

(9) ㄱ. 한국에서 살다가 영어를 다 잊었다.

ㄴ. *날씨가 춥다가 동상에 걸렸다.

ㄷ. *김씨가 선생이다가 목상태가 안 좋아졌다.

(9 ㄱ)은 한국에서 산 이유로 영어를 다 잊은 결과가 후행절에 나타났다. 원래 외국에서 살아가서 영어가 유창한 사람이 한국에서 산 이유로 알고 있던 영어를 잊은 상황으로 유추되는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9 ㄴ)은 날씨가 추운 이유로 동상에 걸린 결과가 후행절에서 나타났지만 문맥에 맞지 않는다. (9 ㄷ) 역시 김씨가 선생인 이유로 말을 많이 해서 목상태가 안 좋아진 결과가 후행절에 나타났지만 문맥에 맞지 않다. 이처럼 ‘-다가’가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질 때 ‘-다가’와 결합하는 선행절의 서술어로는 동사만이

올 수 있다.

두 번째로, ‘-다가’와 결합하는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을 살펴보겠다.

‘-다가’와 결합하는 후행절의 서술어로는 동사만 올 수 있다. 이는 ‘-다가’가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와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 먼저 ‘-다가’가 전환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10) ㄱ. 김선생은 미음을 먹다가 밥을 먹었다.

ㄴ. *처음에는 쥐 죽은 듯이 고요하다가 나중에는 소란스럽다.

ㄷ. *작년에는 꼴찌이다가 올부터 끝에서 세 번째이다.²⁶⁾

(윤평현, 2005)

(10)은 후행절의 서술어로 동사, 형용사, 지정사가 결합한 경우이다. (10 ㄱ)은 선행절에서 미음을 먹다가 후행절에서 밥을 먹은 행위로 전환된 것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10 ㄴ)은 선행절에서 고요하다가 후행절에서 소란스러운 상태로 전환되는데 이는 문맥에 맞지 않다. (10 ㄷ) 역시 선행절에서는 꼴찌이다가 후행절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전환되지만 문맥에 맞지 않아 비문이 되었다. 즉, ‘-다가’가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 ‘-다가’와 결합하는 후행절의 서술어로는 동사만이 올 수 있다.

이번에는 ‘-다가’가 인과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 ‘-다가’와 결합하는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을 살펴보자.

(11) ㄱ. 선생은 미음을 먹다가 혀를 데었다.

26) 윤평현(2005)에서는 “작년에는 꼴찌이었다가 올부터 끝에서 세 번째이었다.”의 ‘-다가’에 선어말 어미가 붙은 ‘-었다가’ 문장을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본고의 연구대상인 ‘-다가’구문으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ㄴ. * 쥐 죽은 듯이 고요하다가 어색하다.

ㄷ. * 반에서 꼴찌이다가 청소 당번이다.

(11)은 ‘-다가’가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질 때 후행절의 서술어로 동사, 형용사, 지정사가 결합한 경우이다. (11 ㄱ)은 선행절에서 미음을 먹은 이유로 후행절에서 혀를 데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11 ㄴ)은 너무 고요한 까닭에 후행절에서 어색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문맥에 맞지 않다. (11 ㄷ) 역시 반에서 꼴찌인 이유로 청소 당번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문맥에 맞지 않아 비문이 되었다. 즉, ‘-다가’가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 역시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질 때와 마찬가지로 ‘-다가’와 결합하는 후행절의 서술어로 동사만이 올 수 있다.

살펴본 것과 같이, ‘-다가’와 결합하는 선행절의 서술어로는 ‘-다가’가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약이 없지만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질 때에는 동사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다가’와 결합하는 후행절의 서술어로는 ‘-다가’가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와 인과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 모두 동사만이 올 수 있는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3) 문장 종결 제약

연결어미 ‘-다가’는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문장 종결법에 제약이 없지만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청유문과 명령문으로 문장이 종결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먼저 ‘-다가’가 전환의 의미기능을

27) 요시모토(2012)는 실제 용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가’와 결합하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이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에서는 동사와 어울린 문장이 대부분이고 형용사나 지정사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는 주로 동사와 결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지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자.

- (12) ㄱ. 강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눈을 감는다.
- ㄴ. 강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눈을 감자.
- ㄷ. 강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눈을 감아라.
- ㄹ. 강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눈을 감았을까?
- ㅁ. 강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눈을 감았구나.

(박종호, 2015)

(12)는 ‘-다가’가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의 평서형, 청유형, 명령형, 의문형, 감탄형 문장의 예로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이로써 ‘-다가’가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 문장 종결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다가’가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자.

- (13) ㄱ. 졸다가 창에 머리를 부딪쳤다.
- ㄴ. 졸다가 창에 머리를 *부딪치자.
- ㄷ. 졸다가 창에 머리를 *부딪쳐라.
- ㄹ. 졸다가 창에 머리를 부딪쳤을까?
- ㅁ. 졸다가 창에 머리를 부딪치는구나.

(박종호, 2015)

(13)은 ‘-다가’가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의 평서형, 청유형, 명령형, 의문형, 감탄형 문장의 예이다. 평서형인 (13 ㄱ), 의문형인 (13 ㄹ), 감탄형인 (13 ㅁ)은 문장이 자연스러우나 청유형인(13 ㄴ)과 명령형인 (13 ㄷ)은 문맥에 맞지 않아 비문이다. 이는 ‘-다가’가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질

때 후행절에 부정적인 일이 주로 오기 때문으로, 부정적인 행위와 잘 결합하지 않는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는 비문이 된다.²⁸⁾

살펴본 것과 같이 ‘-다가’가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문장 종결에 제약이 없지만 ‘-다가’가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청유문과 명령문으로 문장이 종결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28) 이기갑(2004)은 ‘-다가’가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 후행절에 부정적인 사건이 주로 온다고 하였다.

Ⅲ.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기능별 영어 대응 양상 분석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기술하고, 한·영 병렬말뭉치에서 추출한 ‘-다가’의 실제 용례를 활용하여 ‘-다가’의 영어 대응 양상을 의미기능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분석에서 나타날 ‘-다가’의 영어 대응 표지를 한영사전을 통해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영사전 3종에 제시된 ‘-다가’의 영어 대응 표지 및 의미와 예문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2.1장에서 유형화한 ‘-다가’의 의미기능에 따른 ‘-다가’의 영어대응 표지를 목록화하도록 하겠다.

분석한 한영사전은 3종으로 다음과 같다.

<분석한 사전의 목록>

1. 두산동아 사서편집국(19097), 『프라임 한영사전』, 서울: 두산동아.
2. 민중서림편집국(1972), 『옛센스 한영사전』, 경기도: 민중서림.
3. 시사영어사 사전편찬실(1993), 『엘리트 한영대사전』, 서울: 시사영어사.

한영사전 3종에 제시된 ‘-다가’의 영어 대응 표지 및 의미와 예문을 살펴 보겠다.

[표6] 한영사전에 제시된 ‘-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

no.		대응 표지	의미	예문
1	프라임	while, as, during, over, with	다른 동작으로 넘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을 <u>읽다가</u> 잠이 들었다. I fell asleep reading.
2	엣센스	-	동작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을 <u>읽다가</u> 잠들었다. I fell asleep while reading. 집에 <u>오다가</u> 그녀를 만났다. I met her on my way home.
3	엘리트	while, as, during, over, wit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을 <u>꾸다가</u> 깨다. awake from a dream. 숙제를 <u>하다가</u> 말고 나가다. go out leaving one's homework undone. 집에 <u>오다가</u> 그를 만났다. I met him on my way home. <u>일하다가</u> 졸지 말아. Don't go to sleep over your work.

한영사전 3종에 제시된 '-다가'의 영어 대응 표지 및 의미와 예문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다가'의 대응표지를 살펴보면 『프라임』과 『엘리트』에서 while, as, during, over, with를 동일하게 제시하였고 『엣센스』는 대응 표지를 제시하지 않았다.²⁹⁾ '-다가'의 의미로 『프라임』은

29) '-다가'의 영어대응표지를 제시하지 않은 『엣센스』를 제외한 2종의 사전에서 동일하게 제시한 '-다가'의 영어대응 표지 while, as, during, over, with의 각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o.	표지	갈 래	의 미
1	while	접속사	1. -하는 동안(사이), 2. (다른 일과 동시에) -하는 동안에
2	as	접속사	~하는 동안에

전환을 뜻하는 ‘다른 동작으로 넘어감’을 제시하였고 『옛센스』는 간단히 ‘동작의 이행’으로 제시하였으며 『엘리트』는 ‘-다가’의 의미를 제시하지 않았다. 각 사전에서 제시한 ‘-다가’의 영어 예문 역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프라임』과 『옛센스』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예문은 I fell asleep reading.(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로 서로 동일하게 중단전환의 예문을 들었고 『엘리트』 역시 중단전환의 예문들을 제시하여, 3종 모두 중단전환의 ‘-다가’ 예문만을 제시하였다.

세 사전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이점은 각각의 사전에 제시된 대응표지와 제시된 예문에 사용된 ‘-다가’의 대응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라임』과 『엘리트』는 ‘-다가’의 영어대응표지로 while, as, during, over, with를 제시하였지만, 『프라임』의 예문은 그것이 아닌 ‘-ing’를 이용한 예문을 제시하였고, 『엘리트』는 over를 제외하고는 from, ing, on my way와 같이 ‘-다가’의 대응표지로 제시하지 않은 표지를 이용한 예문을 제시하였으며, 『옛센스』는 ‘-다가’의 대응표지 없이 예문만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전에서 영어대응 표지를 찾고 그에 대응하는 예문을 살펴며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

3	during	전치사	1. -동안(내내), (-하는)중에 2. -에(때) (특정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킴)
4	over	전치사	-하는 동안에, -하면서
5	with	전치사	1. <이유·결과를 나타냄> ▷ She blushed with embarrassment. 그녀는 쑥스러워서 얼굴을 붉혔다. 2. -함께 따라, -와 더불어(함께) ▷ The shadows lengthened with the approach of sunset. 해질녘이 가까워지면서 그림자가 길어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영사전에 제시된 ‘-다가’의 영어대응표지를 토대로 2.1장에서 유형화 한 ‘-다가’의 의미기능별 영어 대응표지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7] 한영사전을 토대로 한 의미기능별 ‘-다가’의 영어대응표지

no.	의미 기능	영어대응표지
1	중단전환	while, as, during, over
2	지속전환	while, as, during, over, with
3	인과	with

중단전환의 영어대응표지는 ‘-다가’와 비슷한 뜻을 가지는 ‘-동안’으로 주로 해석되는 while, while, as, during, over로 설정하였고 지속전환의 영어대응표지는 중단전환과 동일하게 while, while, as, during, over로 설정하였으나 ‘-함께 따라’, ‘-와 더불어(함께)’의 의미를 가지는 with를 덧붙였다. 이는 지속전환의 지속되는 상황의 의미와 상통한다. 인과의 영어대응표지는 ‘-함께 따라’, ‘-와 더불어(함께)’의 뜻과 더불어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with로 설정하였다.

3.1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분석 대상, 분석 자료, 분석 자료 선정 기준, 분석 절차의 순서로 살펴보겠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연결어미 ‘-다가’이고, 분석 자료는 <AI Hub>에서 공개한 한·영 병렬말뭉치 중 대화체 10만 문장이다. <AI Hub>는 한

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AI 통합 플랫폼으로, 2019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AI 번역 엔진 개발을 위한 한국어·영어 병렬 말뭉치를 공개하였다.³⁰⁾ 그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8] <AI Hub> 한·영 병렬 말뭉치의 구축 단계 및 내용

구축 단계	세부 절차	설 명
1. 수집	1-1 원천 데이터 선정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상 선정(저작권 확인, 문장 형식 검토)
	1-2 원천 데이터 수집	텍스트(문장) 형태의 원천 데이터 수집
2. 정제	2-1 부적합 데이터 삭제	수집 과정에서 형식 오류가 생긴 문장 삭제
	2-2 데이터 정제	목적에 맞게 데이터 수정
3. 가공	3-1 MTPE 또는 번역	1차 번역물 생성, 기계번역을 활용하거나 사람이 초벌 번역
	3-2 번역물 리뷰	초벌 번역 오류 수정 및 문장 개선, 필요에 따라 리뷰를 2단계로 수행
4. 검사	4-1 외부 검사	전체 번역 문장 평가/검증을 위해 별도 기관이 검사, 검사 지침 필요
	4-2 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	검사 결과를 가공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조치 요청. 조치 후 결과 확인
5. 활용	5-1 번역 업무 활용	결과를 기존 번역 업무에 활용, NMT 학습 후 활용하거나 번역메모리(TM)로 활용
	5-2 코퍼스(말뭉치) 연구 활용	단일 언어 또는 이중 언어 연구에 활용

표와 같이 <AI Hub>의 한·영 병렬 말뭉치를 구축하는 과정은, 원천 데

3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실행기관은 (주)솔트룩스파트너스이다.

이터를 선정하고 수집하는 단계를 시작으로 정제, 가공, 검사의 단계를 거친 후에 번역 업무나 본 연구와 같은 이중 언어의 연구로 활용된다.

<AI Hub>에서 구축한 한·영 병렬 말뭉치의 형태는 문어체, 구어체, 대화체 총 3가지로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9] <AI Hub> 한·영 병렬 말뭉치의 구성 내용

no.	형 태	분 야	문장 수
1	문어체	문어로 쓰인 문체로 문서 작성에 적합한 어투와 용어를 사용	110만
		뉴스, 정부·지자체 홈페이지와 간행물, 행정 규칙·자치법규, 한국 문화 분야로 구성	
2	구어체	문장에서만 쓰이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로 된 문체 ³¹⁾	40만
		범용적으로 쓰이는 문체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지 않음.	
3	대화체	위 구어체 문장 4개로 이루어진 세트	10만
		회의, 출장, 쇼핑, 교통, 학교, 음식점, 병원 등에서의 상황별 대화로 구성	
합계			160만

‘-다가’는 구어체에서 주로 쓰이는 연결어미이므로 <AI Hub>의 한·영 병렬 말뭉치의 형태별 분류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구성인 구어체와 대화체

31) 문장: 구절을 모아서 한 문제를 논술한 글의 한 편. 곧 산문(散文) 형태의 글을 이른다.

가 본고의 분석 자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성인 구어체 각각의 단일문장을 상황정보별로 묶어 대화형식으로 제시한 것이 세 번째 구성인 대화체이므로 이는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지닌 구어체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 이를 본고의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³²⁾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가’는 구어체에서 주로 쓰이는 연결어미이므로 ‘-다가’의 구어체 문장이어야 한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야 하는 텍스트여야 한다.

셋째, 공식적으로 검증된 한국어 말뭉치와 그 영어 번역본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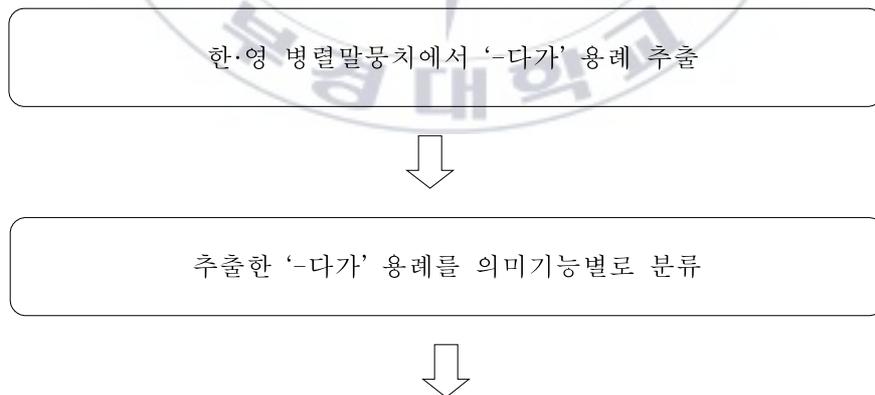
이와 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AI Hub>의 한·영 병렬 말뭉치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선정기준별로 <AI Hub>의 한·영 병렬 말뭉치를 선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AI Hub>의 한·영 병렬 말뭉치는 문어체와 구어체, 대화체의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고의 분석대상인 구어체를 선별하여 사용하기 용이하고, 두 번째로 <AI Hub>의 한·영 병렬 말뭉치는 원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의 실제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여 수집하므로 두 번째 선정 기준에 부합되며, 마지막으로 <AI Hub>의 한·영 병렬 말뭉치는 2019년에 국

32) 서상규 외(2005)는 구어 텍스트를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상호 작용성을 들었다. 상호 작용성은 담화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 생활에서 수집된 구어 자료는 모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고는 <AI Hub>의 구어체와 대화체 중에서 구어체 각각의 단일 문장 4개를 상황별로 묶어 대화형식으로 제시한 대화체가 보다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성이 클 것으로 보아 이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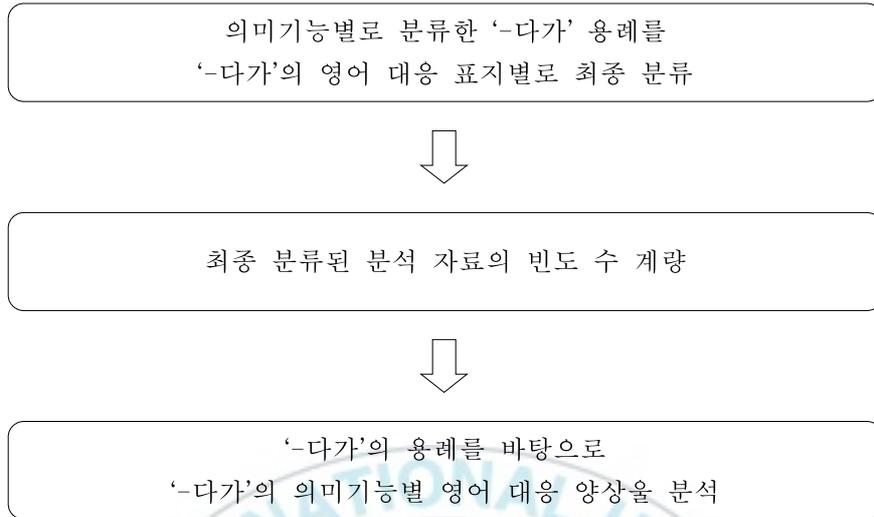
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그 산하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AI 번역 엔진 개발을 위해 구축되었고, 말뭉치의 규모는 총 160만 문장으로 현존하는 한국의 병렬말뭉치 중 매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³⁾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주관하여 대규모의 사업으로 완성되었으므로 데이터의 품질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먼저, <AI Hub> 한영 병렬말뭉치에서 대화체 10만 문장에서 ‘-다가’ 용례를 추출한다. 추출한 ‘-다가’ 용례를 앞서 분류한 의미기능별로 분류하고, 분류한 ‘-다가’의 용례에서 ‘-다가’의 영어 대응 표지를 살핀 후에 영어 대응 표지별로 최종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분류된 ‘-다가’의 용례의 빈도수를 계량하고, ‘-다가’의 용례를 바탕으로 ‘-다가’의 의미기능별 영어 대응 양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다가’의 의미기능별 영어대응양상 분석절차



3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되었으나 한·영 병렬 말뭉치의 두 언어 간 대응형 설정이라는 성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활용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3.2 분석 결과

<AI Hub> 한·영 병렬말뭉치의 대화체 10만 문장에서 추출된 '-다가' 문장은 총 362개로 나타났다. 먼저, '-다가'의 용례 전체에서 나타난 '-다가'의 영어대응표지 및 빈도수와 다가의 의미기능별 빈도수를 살핀 후에 각각의 의미기능에 따른 영어 대응표지 및 양상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체 '-다가' 문장의 영어대응표지 및 빈도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0] '-다가'의 영어대응 표지 및 빈도수

영어 대응 표지			빈도수	비율(%)	빈도 순위
접속사	시간	while	101	28	1

		after	25	7	2
		when	18	5	4
	첨가/시간순서	and	82	23	5
	대조	but	8	2	9
	원인,이유	because	5	1	11
		since	1	0	-
	조건	if	1	0	-
전치사		during	9	2	7
		from	6	2	10
		in	4	1	12
		for	2	1	-
		as	2	1	-
부사		on the way	9	2	8
		then	2	1	-
분사구문			11	3	6
to부정사			1	0	-
무표지			75	21	3
합 계			362	100	

‘-다가’에 대응하는 영어대응표지는 위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품사

별로 접속사, 전치사, 부사, 분사 구문, to부정사, 그리고 1:1 대응이 되지 않는 무표지로 나타났고, 무표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에서 62%를 차지한 빈도순위 1~5위는 모두 while, after, when, and와 같이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로 나타났다. 그 외에 분사 구문, 전치사 during, 부사 on the way, 접속사 but, 전치사 from, 접속사 because가 뒤를 이었다. ‘-다가’가 무표지로 대응되는 경우는 전체21%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는데,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가 큰 탓에 ‘-다가’에 대응하는 마땅한 표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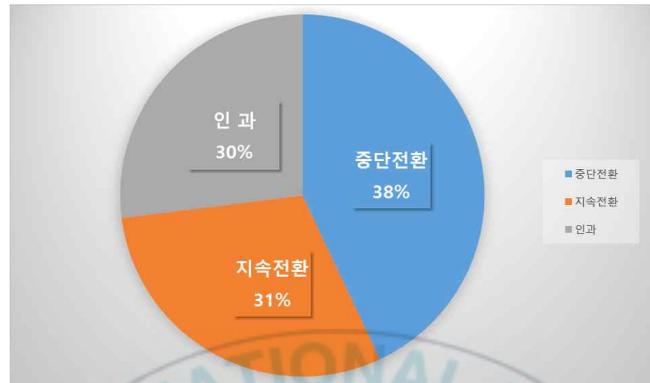
‘-다가’의 의미기능별 빈도수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1] ‘-다가’의 의미기능별 빈도수

no.	의미기능	빈도수	비율(%)
1	중단전환	139	38
2	지속전환	113	31
3	인과	110	30
합계		362	100

34) ‘-다가’ 문장이 무표지로 대응되는 경우는 중단전환, 지속전환, 인과의 의미기능 모두에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영어와 한국어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차이가 큰 언어인 이유로 서로 일대일대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가’가 무표지로 대응된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다가’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다가’와 결합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다가’의 후행절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통사적 구조의 차이로 인한 전혀 다른 형태의 문장 구조로 발현된 경우이다. 이는 영어권에서는 문장 안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이 가능한 내용은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 까닭에 ‘-다가’문장에서 ‘-다가’로 이어진 선행절의 서술어와 후행절의 서술어가 굳이 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중의 한 개를 생략하고 말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유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가’의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다가’의 영어 대응 양상 분석이므로 확실한 영어대응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무표지의 경우의 서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 2] ‘-다가’의 의미기능별 빈도수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된 362건의 ‘-다가’ 용례 중에서 중단전환의 의미기능은 139건으로 빈도수가 제일 높았고 전체에서 38%를 차지하였다. 지속전환의 의미기능은 빈도수 113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고, 마지막으로 인과의 의미기능은 빈도수 110건으로 전체에서 30%인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를 빈도수대로 나열하면 중단전환>지속전환>인과와 같다.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한 ‘-다가’의 용례를 활용하여 연결어미 ‘-다가’의 영어 대응 양상을 중단전환과 지속전환, 그리고 인과의 의미기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2.1 중단전환

중단전환은 어떤 동작이 그치고 다른 행위로 넘어감을 나타내는 ‘-다가’의 의미기능이다.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한 362개의 ‘-다가’ 용례 중에서 중단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는 139건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의

영어대응 표지 및 빈도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중단전환의 영어 대응 표지 및 빈도수

의미 기능	영어 대응 표지		빈도수	비율(%)	빈도 순위
중단 전환	접속사	and	57	41	1
		while	8	6	4
		but	5	4	5
		after	19	14	3
	전치사	as	2	1	-
		during	1	1	-
		from	1	1	-
	부사	then	2	1	-
		무표지	44	32	2
	합 계			139	100

‘-다가’가 중단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 ‘-다가’에 대응하는 영어 표지를 품사별로 살펴보면 접속사, 전치사, 부사와 무표지인 경우로 나타났다. 빈도수 2건 이하의 영어표지를 제외한 빈도 순위 1~5위의 영어표지를 살펴보면 등위접속사 and와 but, 시간 접속사 while, after가 있다. 이중 대조의 의미를 지닌 but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전체에서 41%의 비중을 차지한 빈도 순위 1위의 접속사 and로 대응된 예문을 살펴보자.

(14) ㄱ. 뭐하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서 바꾸면 되지.

ㄴ. Whatever, we can just keep it and change it at the bank.

(14 ㄱ)의 선행절에서는 남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후행절에서는 그 행위가 중단되고 은행에서 바꾸는 동작으로 전환된다. 영어로 번역된 (14 ㄴ)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시간의 선후관계로 이어진다. 선행절의 돈을 가지고 있는 행위와 후행절의 그것을 은행에서 바꾸는 행위가 접속사 and로 연결되어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접속사 and가 가진 8가지의 함축된 의미인 결과, 부가, 시간 순서, 유사성, 대조, 양보, 조건, 설명 중에서 시간 순서의 의미로 발현된 경우이다(Quirk et al. 1985). 이런 경우 문장에 then을 넣어보면 의미가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15) ㄱ. 저는 지하철 조금 타다가 버스로 갈아타서 집에 가요.

ㄴ. I get on the subway for a while and then transfer on to a bus.

(16) ㄱ. 지금 상태로 봐서는 멍이 발톱 안쪽에 생겨, 발톱이 자라면서 서서히 올라오다가 빠질 것 같네요.

ㄴ. For now, it seems that the bruise is inside the toenail so it will get bigger as the toenail grows and then fall off.

(15)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그 다음에 버스로 갈아타서 집에 가는 행위가

이어지는데, 접속사 and 다음에 then이 추가되어 시간의 선후관계가 보다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16) 역시 and 다음에 then이 추가되어, 발톱이 자라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발톱이 빠지는 상태로 이어지면서 시간의 선후관계가 더 확실히 드러난 경우이다.

중단전환의 ‘-다가’가 and로 번역되어진 경우 다수는 안내나 지시와 같은 문장류로 나타났다. 예문을 살펴보자.

(17) ㄱ. 여기서 직진하시다가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ㄴ. Go straight from here and when you see an escalator you can take the one on the right to go up.

(18) ㄱ. 스탠딩석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다가 30분 전에 순서대로 입장하게 됩니다.

ㄴ. People with tickets for the standing area should wait in line 1 hour before the performance and will enter in order from 30 minutes before the start.

(17)는 직진을 하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행위로 전환하라는 길 안내 문장이고 (18)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기하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입장하는 행위로 전환하라는 공연 안내 문장이다. (17), (18) 두 문장 모두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 and의 영어 표지로 대응되었다. 이는 길안내는 길의 방향이 순서대로 제시되어야 하고, 공연 안내 및 설명 역시 공연의 진행 상황이 시간의 순서대로 안내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간 접속사 after와 while로 대응된 예문 역

시 ‘-다가’의 시간의 선후 관계를 보여준다.

(19) ㄱ. 그렇겠다. 진짜 계속 교복 입다가 안 입는 것도 되게 이상할 것 같아.

ㄴ. I know right? It will be pretty weird to not wear uniforms anymore after wearing it for so long.

(20) ㄱ. 안녕하세요, 어제 전달해주신 영수증을 확인하다가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ㄴ. Hello, I am calling to ask you something after checking the receipts you sent yesterday.

(19), (20)은 시간 접속사 after의 영어표지로 대응된 문장들이다.

(19 ㄱ)의 교복을 계속 입는 행위가 중단되고 안 입는 행위로 중단되는 것이 (19 ㄴ)에서는 후행절이 주절로 바뀌고 선행절이 after 분사구문이 되는 것으로 문장 구조가 바뀌면서 교복을 오랫동안 입은 후에 안 입는 것이 이상할 것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ㄱ) 역시 선행절의 영수증을 확인하는 행위가 (20 ㄴ)에서는 분사구문이 되어 주절의 뒤에 붙어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질문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다는 형태로 번역되었다. 두 경우 모두 ‘~후에’, ‘~다음에’의 뜻을 가진 시간 접속사 after를 이용하여 ‘-다가’ 문장의 시간순서를 드러냈다.

(21) ㄱ. 맞아, 자다가 일어나서 선풍기 끄기 귀찮잖아.

ㄴ. That's right, it's so bothering to get up and turn off the fan while sleeping.

(21)은 시간 접속사 while의 영어표지로 대응된 문장이다. (21 ㄱ)의 자는 행위가 중단되고 일어나서 선풍기를 끄는 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21 ㄴ)에서는 자는 동안에 일어나서 선풍기를 끄기 귀찮은 형태로 번역되었다. 접속사 while은 ‘~의 동안에’의 뜻을 지니고 있어 중단전환 보다는 지속전환의 의미기능에 적합하게 보이나 실제 용례에서는 중단전환의 문장에서 적지 않은 빈도수로 나타났다. 이는 전환이라는 큰 갈래 안에서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의 어느 일정 부분은 서로 모호하게 교차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가’가 접속사 after와 while로 번역되는 경우 모두 선행절의 내용이 분사구문으로 바뀌고, 후행절의 내용이 주절이 되어 나타났다. 이는 영어권의 말을 할 때 결론을 먼저 밝히고 그 외의 부수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것과 같이 접속사 and, after, while 모두 ‘-다가’ 문장에서 시간의 선후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다가’가 대조를 나타내는 등위 접속사 but으로 대응된 예문을 살펴보겠다.

(22) ㄱ. 너희 표는 어디에서 구했나? 난 찾다가 포기했는데.

ㄴ. Where did you get your ticket? I tried to find it for quite a while but had to give up.

(23) ㄱ. 나도 잡지에 관심이 없다가, 요리 시작하면서 구독한 거야.

ㄴ. I wasn't interested in magazines, either, but I got it when I started cooking.

(22)는 표를 찾는 행위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행위로 전환되었고 (23)은

잡지에 관심이 없는 상태가 중단되고 잡지를 구독하는 행위로 전환되었다. 두 경우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 (22)의 표를 찾는 행위와 표를 포기하는 행위는 서로 대립되고, (23)의 잡지에 관심이 없는 상태와 잡지를 구독하는 행위 역시 서로 대립된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의 의미가 서로 대립되는 경우 ‘-그러나’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 but이 대응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전치사 as, during, from과 부사 then이 중단전환의 영어 대응 표지로 나타났다.

3.2.2 지속전환

지속전환은 어떤 동작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다른 행위가 벌어짐을 나타내는 ‘-다가’의 의미기능이다.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한 362개의 ‘-다가’ 용례 중에서 중단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는 113건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의 영어대응 표지 및 빈도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지속전환의 영어 대응 표지 및 빈도수

의미 기능	영어 대응 표지	빈도수	비율(%)	빈도 순위
지속 전환	while	46	41	1
	when	12	11	3
	and	10	9	4
	but	3	3	-
	after	3	3	-
	if	1	1	-

전치사	during	6	5	6
	in	2	2	-
	from	2	2	-
부사	on the way	8	7	5
to 부정사		1	1	-
분사 구문		2	2	-
무표지		17	15	2
합 계		113	100	

‘-다가’가 지속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 ‘-다가’의 영어 대응 표지를 품사별로 살펴보면 접속사, 전치사, 부사, to 부정사와 무표지인 경우로 나타났다. 빈도수 3건 이하의 영어표지를 제외한 빈도 순위 1~6위의 영어표지를 살펴보면 시간 접속사 while, when과 등위 접속사 and, 그리고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전치사 during 외에 진행 중임을 뜻하는 부사 on the(one’s) way가 있다. 먼저 전체에서 41%의 비중을 차지한 빈도 순위 1위의 접속사 while로 대응된 예문을 살펴보자.

(24) ㄱ. 내가 드라마를 보다가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았는데, 그건 어때?

ㄴ. While I was watching a drama, I saw some clothing that really suited you. How about that?

(25) ㄱ. 뭐야, 우리 이야기하다가 역 지나친 것 같은데?

ㄴ. What, I think we just passed our stop while talking, right?

(24)의 선행절에서 드라마를 보는 행위는 후행절에서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을 찾으면서도 지속된다. 즉, 드라마를 보는 도중에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았다. (25) 역시 선행절의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후행절에서 역을 지나칠 때도 지속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역을 지나친 것이다. 두 예문 다 선행절의 행위가 후행절에서도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동안에’에 뜻을 지닌 시간 접속사인 while이 이끄는 부사절은 흔히 동시 시간절이라고 하고 주절과 동시에 벌어진 일이 자리하며 주로 진행형으로 나타난다. (24)에서는 부사절 while I was watching a drama와 같은 진행형으로 나타났고 (25)에서는 부사절 while we were talking에서 주어와 동사가 생략된 형태의 while talking과 같은 진행형이 나타났다. 실제로 while로 대응된 46건의 용례 중에서 4건을 제외한 모든 문장에서 이와 같은 진행형 형태의 부사절이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while으로 연결된 문장에서 부사절은 전체 복문 안에서 배경 정보(background information)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의 시간 폭이 주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다. 윤평현(2005)은 지속전환은 계속되는 선행절 사태 속에서 후행절 사태가 일어나므로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 사태로까지 지속되면 일반적으로 선행절 사태는 후행절 사태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이 때의 ‘-다가’는 ‘-는중에’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는 while이 가지는 지속성의 의미뿐 아니라 문장에서 배경정보를 제공하는 성질과 일맥상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전환의 용례에서 while이 41%의 빈도수 1위로 대응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while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전치사 during 역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26) ㄱ. 아이 장난감을 구매했는데, 제품조립에 하다가 부품이 일부가 없더라고요.

ㄴ. I bought the toy for the kid but I found the missing parts during the assembly.

(26)은 제품조립을 하는 도중에 부품의 일부가 없어진 것을 알았고 전치사 during으로 대응되었다. 접속사 while과 마찬가지로 조립을 하는 배경에서 부품이 없다는 것을 안 경우이다.

또 다른 시간 접속사 when으로 대응된 예문을 살펴보자.

(27) ㄱ. 점심 먹으러 나가다가 하수구에 구두 굽이 꺾서 부러졌길래 급하게 하나 샀어요.

ㄴ. My heel got caught in the sewer grate and broke when I went out for lunch, so I hurried and got new shoes.

(27 ㄱ)의 점심 먹으러 나가는 도중에 하수구에 구두 굽이 꺾서 부러진 것이 (27 ㄴ)에서는 ‘-때에’의 의미를 가진 when으로 대응되어 점심 먹으러 나갈 때 하수구에 구두 굽이 낀 형태로 번역되었다. 이는 while과 마찬가지로 when 부사절이 이 가지는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이 문장에서 배경이 되어 대응된 경우이다. 시간순서의 의미를 지닌 접속사 and도 while과 비슷한 빈도수로 나타났다. 예문을 살펴보자.

(28) ㄱ. 어제 컴퓨터 하다가 우연히 찾은 곳이야, 나쁘지 않네.

ㄴ. I was on my computer and came across it, it is not bad.

(29) ㄱ. 어젯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너무 깊이 잠들었습니다.

ㄴ. I was studying late last night and I fall fast asleep afterward.

(28)에서는 컴퓨터를 하는 도중에 우연히 찾은 곳이고, (29)에서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는 도중에 깊이 잠이 들었다. 두 경우 모두 시간의 선후 관계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and로 대응되었다. and는 중단전환에서 빈도수 1위로 대응되었던 접속사이지만 지속전환에서도 적지 않은 수로 나타났다. 이는 일차적으로 중단전환과 지속전환 모두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므로 화자가 사건이 중단되고 전환되거나 지속되는 상태에서 전환되는 것의 구분을 하지 않고 말을 할 때 and와 같이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문장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전환의 용례 중에 ‘가다’와 ‘오다’의 동사가 쓰인 경우는 대부분이 부사 on the(one’s) way로 대응되었다.

(30) ㄱ. 아이스 팩 포장으로 해주세요. 더워서 가다가 다 녹아버릴 것 같아요.

ㄴ. Please use the ice pack wrapping. I’m afraid it will melt on the way because it’s hot.

(31) ㄱ. 그래도 오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 꼼꼼히 해주세요.

ㄴ. But there are many cases they get broken on the way, so please do it more carefully.

(30)은 가는 도중에 그것이 녹을 것을 우려하였고 (31)은 오는 도중에 그것이 깨지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두 경우 모두 가거나 오는 도중에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진행되어, 도중에’의 의미를 지닌 부사 on the way로 대응되었다.

그 외에 접속사 but, if, 전치사 after, in, from, to 부정사 등이 지속전환의 영어 대응표지로 나타났다.

3.2.3 인과

인과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나타냄을 나타내는 ‘-다가’의 의미기능이다.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한 362개의 ‘-다가’ 용례 중에서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는 110건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의 영어대응 표지 및 빈도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4] 인과의 영어 대응 표지 및 빈도수

의미 기능	영어 대응 표지		빈도수	비율(%)	빈도 순위
인과	접속사	while	47	43	1
		and	15	14	2
		when	6	5	5
		because	5	5	6
		since	1	1	-
	전치사	after	3	3	-
		from	3	3	-
		in	2	2	-

	for	2	2	-
	during	2	2	-
부 사	on the way	1	1	-
	분사 구문	9	8	4
	무표지	14	13	3
합 계		110	100	

‘-다가’가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 ‘-다가’의 영어대응표지를 품사별로 살펴보면 접속사, 전치사, 부사, 분사 구문과 무표지인 경우로 나타났다. 빈도수 3건 이하의 영어표지를 제외한 빈도 순위 1~6위의 영어표지를 살펴보면 시간 접속사 while, when과 등위 접속사 and, 이유 접속사 because와 분사 구문이 있다. 접속사 while, and, when, 분사구문으로 대응된 예문들을 먼저 살펴보자.

- (32) ㄱ. 유리 조각을 치우다가 우리가 손에 박혔었는데 아직 아파요.
 ㄴ. While cleaning glass fragments, I got glass embedded in my hand and it still hurts.
- (33) ㄱ. 아침에 버스 타려고 막 뛰다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ㄴ. I was running to catch a bus in the morning and sprained my leg.
- (34) ㄱ. 부품이 작아서 아이가 사용하다가 큰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ㄴ. I'm afraid something bad will happen when a child uses it

since its parts are that small.

(35) ㄱ. 제 딸이 뛰어다니다가 다쳤는데, 구급약이 있을까요?

ㄴ. My daughter hurt herself running. Is there emergency medication?

(32)는 접속사 while로 대응되었고 유리 조각을 치운 이유로 유리가 손에 박혔고, (33)은 접속사 and로 대응되었으며 버스를 타려고 막 뛰었기 때문에 다리를 삐끗했다. (34)는 접속사 when으로 대응되었고 작은 부품들이 아이가 사용함으로써 큰일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35)는 분사 구문으로 대응되었고 딸이 뛰어다녔기 때문에 다쳤다.

(32)~(35)는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인과관계의 문장들이고, (32)~(35)의 대응 표지인 접속사 while, and, when은 앞서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에 대응하는 영어표지를 살펴볼 때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에서 고루 나타났던 접속사들이다.³⁵⁾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인과의 의미기능에 대응되는 영어대응표지는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의 의미기능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과의 의미기능으로 분류되어 나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이기갑(2004)은, ‘-다가’의 문장은 우리의 경험과 세상에 대한 지식 때문에 전환으로도 해석되고, 인과로도 해석된다고 하였다. 두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면 인과적 해석이란 곧 세상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특수한 경우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윤평현(2005) 역시 ‘-다가’ 문장이 가지는 인과 관계는 선

35) (35)의 분사 구문 running은 부사절 while she was running에서 접속사 while과 주어, 동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인과의 용례에서 분사구문으로 대응된 표지 9건 모두 이와 같이 부사절 while + 주어+ 동사가 분사구문으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인과에서 분사구문으로 대응된 표지들은 모두 시간 접속사 while로 대응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행절과 후행절 사이를 이해하는 우리들의 세상사적 앎(knowledge of worldly affairs)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전환의 다가 문장들에 경험과 세상에 대한 지식 등이 작용하여 전환으로 남거나 인과의 의미기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에서 나타났던 ‘-다가’의 영어대응표지들이 인과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환의 의미기능에서 어떻게 세상사적 앎이 적용되어 인과의 의미기능으로 바뀌는지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36) ㄱ. 칼을 사용하다가 손가락이 베었어요. 출혈이 심한 것 같아요.
 ㄴ. I cut my finger while using a knife. I'm bleeding too much.
- (37) ㄱ. 하지만 너 너무 연습하다가 목 상태가 안 좋아졌잖아. 쉴 때는 쉬는 거야.
 ㄴ. But you've been practicing too hard and your voice has gotten worse. You should take a break.

(36)은 접속사 while로 대응되었고, 칼을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37)은 접속사 and로 대응되었고, 노래 연습을 많이 하다가 목 상태가 안 좋아졌다. 두 문장 모두 선행절의 사태가 후행절에서 전환되었으므로 전환의 의미기능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사적 앎을 통해 이 문장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험으로든 아니든 우리는 칼을 잘못사용하면 손가락을 베인다는 사실을 알고,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하면 목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기갑(2004)은 언어적 특징으로 인해 전환에서 인과의 의미기능으

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38) ㄱ. 오늘 학교에 (급히) 가다가 도로에서 넘어졌는데 못 걸쥔어요.

ㄴ. I fell on the street while going to school (in a hurry) and I can't walk.

(38 ㄱ)에서 괄호 안의 부사 '급히'를 빼고 본다면 이 문장은 지속전환으로 볼 수 있다. 학교를 가는 도중에 넘어졌고 넘어진 이유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사 '급히'를 문장에 넣게 되면, 학교에 급히 간 것이 원인이 되어 도로에서 넘어진 것이 되므로 인과의 의미기능이 성립된다. 즉, (38 ㄴ)에서는 '-다가'의 영어대응표지인 접속사 and 보다 '급히'의 영어 표현인 in a hurry로 인해 인과의 의미기능임이 더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과의 의미기능이 이유 접속사 because로 대응된 예문을 살펴보자.

(39) ㄱ. 지난번에도 우리는 여유 부리다가 내리지 못했잖아.

ㄴ. Last time we weren't able to get off because we were relaxing.

(40) ㄱ. 확인했습니다, 품질 책임자를 찾아보다가 신경을 못 썼어요.

ㄴ. I just reviewed it, I didn't pay attention because I was looking for the quality manager.

(39)는 여유를 부린 이유로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고, (40)은 품질책임자를 찾느라 신경을 못 썼다. 인과관계로 연결된 두 문장이 ‘-때문에’의 의미를 지닌 이유 접속사 because로 대응되었다.

그 외에 전치사 after, from, in, for during 등이 인과의 영어대응표지로 나타났다.

3.3 시사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가’ 교육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가’의 교육 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중단전환, 지속전환, 인과의 의미기능별 영어대응 표지를 제시하여 영어권 학습자들의 보다 가시적이고 확실한 ‘-다가’의 이해를 돕는다. ‘-다가’의 영어대응표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간의 순서와 시간의 지속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학습자들에게 명확히 주시시키면서 이와 함께 ‘-다가’가 가지는 특성, 즉 ‘-다가’는 ‘지속성의 의미 특성을 가진 선행절과 결합한다.’라는 의미적 제약을 설명한다. 그와 함께 분석에서 사용된 ‘-다가’의 용례에서 추출한 지속성을 가지는 고빈도 동사 목록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다가’가 가지는 의미적 특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분석 결과에서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을 대표하는 영어대응표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를 제시하며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의 의미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육한다.³⁶⁾ 중단전환의 ‘-다가’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36) 이회환(2018)은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초급 수준의 학습자가 다가의 중단성과 지속성을 구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선행절의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을 구분하지 않고 전환으로 통합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으나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의 의미기능에 따라 대응되는 영어표지는 뚜렷이 차이가 나므로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을 분

나타내는 접속사 and가 전체의 4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빈도수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전환의 '-다가'는 접속사 while이 전체의 4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빈도수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춘다. 지속전환의 '-다가'와 그 영어대응표지인 접속사 while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인 지속성과 문장 안에서 배경정보를 가지는 성질을 덧붙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전환과 인과의 의미기능을 위계화하여 교육한다. 인과의 '-다가'에 대응하는 영어표지는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에 나타났던 표지들이 중복되어 나타났고, 이는 전환의 '-다가'에 경험과 세상에 대한 지식 등이 작용하여 전환으로 남거나 인과의 의미기능으로 분류된 것이므로 '-다가'의 보다 기본적인 의미기능인 전환의 '-다가'를 먼저 다룬 후에 인과의 '-다가'를 다루도록 한다. 인과의 교육 시, 인과의 '-다가'가 가지는 언어적 특징인 '너무', '급히', '빨리', '느리게'와 같은 특정한 부사적 표현 등을 영어 표현과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가 전환의 '-다가'와의 구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4장에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리하여 가르치는 것이 보다 영어권 학습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교수 방법으로 보인다.

IV.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방안

이 장에서는 ‘-다가’의 수업 모형을 만들기 위해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을 살펴어 ‘-다가’의 학습 단계 및 교육 과정을 검토하고, ‘-다가’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다가’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찾을 것이다. 그 결과를 3장의 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다가’의 수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한국어 교육 과정 및 자료 탐구

4.1.1 교육 과정 분석

연결어미 ‘-다가’의 학습단계 및 교육 과정을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³⁷⁾ 아래의 표를 살펴보자.

[표 15]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가’

등급	분류	대표형	의미	국제 통용 (2단계)	문법·표현 교육내용 개발
2급	연	-다가1(1)	▪ 중단	중급	초급

37)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은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으로 2011년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를 시작으로 2016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와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두 차례의 후속 연구 보고서가 제작되었다. 이하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이라 칭하겠다.

	결어미		▪ ‘어떤 행위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행위나 상태로 바뀔’		
3급	연결어미	-다가1(2)	▪ 중단 ▪ ‘앞선 행위나 상태가 하나의 원인과 근거로서 계속되면 부정적인 상황이나 의외의 결과가 생기게 될 것임’	중급	중급

위의 표와 같이 ‘-다가’는 초급인 2급과 중급인 3급에서 나누어 가르쳐야 할 문법항목이다. 2011년 처음 완성된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국제통용 2 단계)에서의 ‘-다가’는 중급에서 한 번 다루야 할 문법항목으로 제시되어졌으나 2017년 보완된 연구(문법·표현 교육내용 개발)에서의 ‘-다가’는 2급과 3급, 즉 초급과 중급으로 세분화하여 다루야 할 문법항목으로 평정되었다. 2급과 3급으로 세분화 된 이유는 ‘-다가’가 가지는 의미기능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가’의 중심의미는 전환이나 중단, 부가 등으로 여러 학자에 의해 주장되어 왔고 그 외의 문맥적 의미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이전에는 ‘-다가’의 이러한 특성이 한국어 교육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7년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의 내용에 세분화되어 보완되면서 ‘-다가’의 의미기능인 중단(전환)과 인과를 구분하여 가르치도록 세분화 된 것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에서는 ‘-다가’의 중심의미를 2급과 3급 모두에서 중단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다가’가 가지는 ‘어떤 행위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행위나 상태로 바뀔’과 ‘앞선 행위나 상태가 하나의 원인과 근거로서 계속되면 부정적인 상황이나 의외의 결과가 생기게 될 것임’의 두 의미를 구분하여 초급과 중급에서 각각의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4.1.2 교육 자료 분석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다가’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석 자료는 한국어 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대학교의 부속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6종의 한국어 교재이다.³⁸⁾

[표 16] 분석한 한국어 교재의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2A』, 문진미디어³⁹⁾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3A』, 투판스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a), 『서강한국어2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⁴⁰⁾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b), 『서강한국어3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 한국어2』, 연세대 출판부 ▪ 고려대학교 한국어 문화교육센터(2008), 『재미있는 한국어3』, 교보문고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한국어2-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2015), 『함께 배워요 한국어2B』, 동국대학교출판부

각 교재에 제시되어있는 ‘-다가’의 제시양상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38) 한국어 교육은 1959년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설립을 시작으로 이후에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경희대 등 대학교 부속 언어 교육기관이 신설되면서 확산되었고 한국어 교재 역시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학교 부속 언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었다.

39) 서울대 교재의 경우 주단원에는 문법 설명 없이 문제만 제시되어 있고 책 뒤편의 부록에 문법 설명이 따로 제시되어 있다.

40) 서강대 교재 역시 주교재가 아닌 별도의 문법 단어 참고서에 문법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표 17] '-다가'의 한국어 교재별 제시 양상

교재명	학습 단계	문법 설명	예 문
서울대	2A(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form is used to indicate an interrupted action followed by another action. ▫ '-다가' is added to verb stems. ▫ The subject of the first clause and the final clause should be the same. ▫ This form can indicate not only a change in action by a subject, but also a change in external cond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 <u>가다가</u>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가세요. ▪ 영화를 <u>보다가</u> 재미없어서 잤어요. ▪ 밥을 <u>먹다가</u> 전화를 받았어요.
	3A(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다(가) ▫ Used when the action in the first clause is the basis or cause of a negative situation in the following clause. ▫ Combines with verbs. ▫ The subject must be the same in both clauses, but is omitted (but implied) from the second cla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하면서 전화를 <u>받다가</u> 교통사고가 났대요. ▪ 늦게까지 <u>자다가</u> 학교에 지각했어요. ▪ 딴 생각하며 <u>걷다가</u> 하수구에 빠졌어요.
서강대	2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 is used to express an action in progress before a change of actions occurs. ▫ '-다가' is always attach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를 만나러 <u>가다가</u> 돌아왔어요. ▪ 영화를 <u>보다가</u> 극장에서 나왔어요. ▪ 친구하고 <u>이야기하다가</u>

		<p>to the end of a verb ste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tense is shown at the end of the sent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싸웠어요. ▪ 공연을 <u>보다가</u> 잤어요.
	3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2 is used when a different action, which is negative and not anticipated, happened while doing a certain action. Usually the preceding action of ‘-다가’2 is the cause of the negative result. ▫ ‘-다가’2 is used with verbs and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요리하다가</u> 손을 다쳤어요. ▪ 늦잠을 <u>자다가</u> 회사에 늦었어요. ▪ 친구의 이야기를 <u>들다가</u>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 눈 오는 날 길을 <u>걸어가</u> <u>다가</u> 미끄러졌어요.
연세대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is used together with an action verb and it shows a new performance takes place without the action of the verb completed. For instance, if you got the phone at the time of eating the meal, you may say,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The subjects from the first and the second clauses are the same because a person does the both a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을 <u>자다가</u> 깬어요. I got up while I was sleeping. ▪ 운동을 <u>하다가</u> 쉬고 있어요. I am taking a rest from working out. ▪ 영화를 <u>보다가</u> 재미없어서 나왔어요. I stopped watching tie movie and left because it was not interesting.
고려대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 is attached to a verb stem, indicating that something else comes up in the middle of an ongo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를 <u>볶다가</u> 채소를 넣고 조금 더 볶으세요. ▪ 이 길을 따라 <u>쪽</u> <u>걸다가</u>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p>situ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ubjects of the preceding and the following clause should be identical. 	<p>가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에 학교에 <u>오다가</u> 샀어요.
인화여대	2-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다가 ▫ ‘-다가’ is used when an action or situation has been ended and changed to another action or situation. ▫ The subject in the first clause is the same as that of the following clause. ‘-다가’ is attached to a verb and is used whether the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or a vow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젯밤에 <u>숙제하다가</u> 피곤해서 잤어요. ▪ 이치로 씨는 이메일을 <u>쓰다가</u>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있어요.
동국대	2B(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 implies the action mentioned in the first phrase is continued while the other action or situation is happening in the next phr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숙제하다가</u> 피곤해서 잤어. ▪ 학교에서 <u>오다가</u> 친구를 만나서 좀 늦었어요.

한국어 교재 6종 중 서울대, 서강대 2종과 나머지 연세대, 고려대, 인화여대, 동국대 4종이 각각 비슷한 양상을 띠므로 그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울대와 서강대 2종이 나머지 교재들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다가’의 의미기능을 전환과 인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두 교재 모두 전환의 의미기능을 2권(초급)에서 제시하고 인과의 의미기능을 3권

(중급)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각 의미기능에 따른 통사적 제약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통사적 제약은 주어일치 제약이나 결합하는 서술어 정도이고 그 내용이 서로 일관되지 않는다. 제시된 예문을 살펴보면 전환의 의미기능에 대한 예문은 서울대와 서강대 모두 중단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예문만을 제시하였다.

나머지 연세대, 고려대, 인화여대, 동국대 4종의 교재들은 모두 ‘-다가’의 문법 설명으로 전환의 의미기능만을 제시하였고 그 중 고려대와 연세대 2종만이 주어일치제약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4종 중에서 3종이 전환의 의미기능인 ‘-다가’를 2권(초급)에 수록하였으나 고려대만이 3권(중급)의 2단원에 ‘-다가’를 수록하였다. 제시된 예문을 살펴보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중단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예문만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이화여대와 동국대는 지속 전환의 예를 중단전환의 예와 함께 제시하였다.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재는 ‘-다가’의 문법 설명을 대부분 전환의 의미기능으로 제시하고 있고, 예문으로는 중단전환의 의미기능만이 주로 제시되어 있어 전환의 또 다른 의미기능인 지속전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둘째, ‘-다가’의 인과의 의미기능을 다루지 않는 교재가 대부분이다.

셋째, 한국어 교재에 ‘-다가’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은 거의 반영되어있지 않고, 제시되어 있는 제약은 교재마다 일관되지 않는다.

4.1.3 개선점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의 개선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교재는 ‘-다가’의 문법 설명을 대부분 전환의 의미기능으로 제시하고 있고, 예문 또한 중단전환의 의미기능만이 주로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는 ‘-다가’가 중단전환의 의미기능만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가’의 문법 설명에 있어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을 함께 제시하되, 그들의 차이점을 적절한 예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교재에서 인과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다가’에 대한 제시는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인과의 의미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살펴본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에서 전환의 의미기능은 2급(초급)에서 제시하고 인과의 의미기능은 3급(중급)에서 제시하도록 평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은 2급에서 함께 다루고 인과의 의미기능은 3급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다가’의 학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재에 ‘-다가’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제시되어 있는 제약은 교재마다 일관되지 않다. 특히 ‘-다가’는 의미기능별로 통사적 제약을 달리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므로 ‘-다가’의 다양한 의미기능에 맞는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어 교재는 단순히 ‘-다가’의 전환의 의미만을 제시하며 ‘-다가’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결어미라는 문법항목 자체를 알지 못하는 영어권 학습자에게는 보다 명확한 ‘-다가’의 문법적 설명과 다양한 예문이 필요하다. 4.2장에서는 살펴본 개선점과 3장의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종합하여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가’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4.2 ‘-다가’의 수업 모형

4.2장의 ‘-다가’의 의미기능별 영어대응 양상의 분석 결과와 4.1장의 교육 실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완성된 ‘-다가’의 수업모형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2급과정의 중단전환과 지속전환, 3급 과정의 인과로 나누어 제시한다.

4.2.1 중단전환, 지속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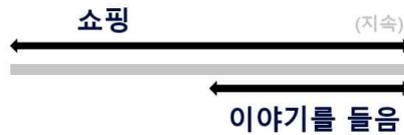
목표 문법	‘-다가’		
학습 목표	1.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의 ‘-다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의 ‘-다가’를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학습 대상	한국어 2급 과정의 영어권 학습자 (10명)		
소요 시간	50분		
단계 (시 간)	수업 내용	교수·학습 내용	자료 및 지도상 의 유의점
도입 5분	흥미 유발	<p>▷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학습 동기 유발하기 : 연결된 자고 있는 그림과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그림과, 연결된 자고 있는 그림과 꿈을 꾸고 있는 그림을 각각 보여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p> <p>(첫 번째 그림) T :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S : 자고 있어요. T: 이제 뭐하고 있어요? S : 물을 마시고 있어요. T: 맞아요, 이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서 물을 마시</p>	※PPT, 그림

	<p>학습 목표 제시</p>	<p>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 T :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S : 자고 있어요. T: 이제 뭐하고 있어요? S : 꿈을 꾸고 있어요. T: 맞아요, 이 사람은 자다가 꿈을 꾸고 있어요.</p> <p>▷ 학습 목표 제시하기 : 앞서 이야기 나눈 ‘-다가’를 적용한 문장을 보여주며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문) ▫ 잠을 <u>자다가</u> 물을 마셨어요. I woke up from sleeping <u>and</u> drank water. ▫ 잠을 <u>자다가</u> 꿈을 꿔요. I had a dream <u>while</u> sleeping.</p> </div> <p>T: 오늘은 어떤 동작이 중단되고 다른 행위로 넘어가는 경우와 어떤 동작이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다른 행위로 넘어가는 경우에 쓰는 표현인 ‘-다가’를 공부할 거예요.</p>	
<p>제시 10분</p>	<p>의미 제시</p>	<p>▷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의 ‘-다가’의 의미 제시하기 : 예문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가’의 의미를 파악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문1) ▫ 쇼핑을 <u>하다가</u> 저녁을 먹으러 갔어. I was shopping <u>and</u> went to eat dinner.</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The diagram shows a horizontal timeline. A black arrow labeled '쇼핑' (shopping) starts from the left and ends with a vertical line labeled '(중단)' (interruption). From this vertical line, a grey arrow labeled '밥을 먹음' (eating) starts and continues to the right.</p> </div>	<p>※ PPT, 예문</p>

(예문2)

▫ 쇼핑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

I heard that while shopping.



(교사가 읽고 학습자가 따라 읽기)

T: 함께 읽어볼까요?

두 문장 모두 쇼핑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예문1은 쇼핑을 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쇼핑을 하는 행위가 중단됐어요. 예문2는 쇼핑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쇼핑은 계속 진행중이에요.

이처럼 어떤 동작이 중단되고 다른 행위로 넘어가는 것은 중단전환이라고 하고, 어떤 동작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다른 행위로 넘어가는 것은 지속전환이라고 해요.

● 중단전환의 ‘-다가’ 용례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로 나타난 영어대응표지인 and와 지속전환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로 나타난 영어대응표지인 while로 대응된 예문으로 각각의 의미를 제시한다.

● ‘-다가’의 영어대응표지인 and와 while은 각각 시간의 순서와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접속사임을 간단히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다가’ 역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형태 제시 > '-다가'의 형태 제시하기
: PPT) 형태 표와 예를 보며 '-다가'의 형태를 제시한다.

<형태> 동사 + '-다가'

동사 어간의 끝음절의 받침에 상관없이 '-다가'를 쓴다.

예)

먹다 → 먹다가

읽다 → 읽다가

닫다 → 닫다가

보다 → 보다가

하다 → 하다가

가다 → 가다가

제약 제시 > '-다가'의 의미적 제약 제시하기
: '-다가'는 상황의 [+지속성]의 의미 특성을 가진 선행절과 결합한다.

● '-다가'는 일정한 시간적인 길이를 가진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다가'가 취할 수 있는 용언은 '-하고 있다'와 같다. '-다가' 문장의 용언에 '-하고 있다'를 대입하여 '-다가'가 가지는 지속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⁴¹⁾

T: '-다가'가 가지는 지속성을 알아볼 때에는 동사에 '-하고 있다'를 넣어보면 돼요.

(예문)

- 잠을 자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다.(o)
- 밥을 먹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다.(o)
- 책을 읽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다.(o)

		<p>▫ <u>입학하다가</u> 그 생각이 떠올랐다.(x) ▫ <u>사망하다가</u> 그 생각이 떠올랐다.(x) ▫ <u>들키다가</u> 그 생각이 떠올랐다.(x)</p> <p>▷ ‘-다가’의 통사적 제약 제시하기 <통사 제약> 1) 주어·서술어 일치 제약 연결어미 ‘-다가’구문은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 예) 그는 청소를 <u>하다가</u> 사진첩을 발견했다.(o) 그는 청소를 <u>하다가</u> 나는 사진첩을 발견했다.(x)</p> <p>2)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다가’와 결합하는 후행절의 서술어는 동사만 올 수 있다. 가. 김선생은 미음을 먹다가 <u>밥을 먹었다</u>.(o) 나. 처음에는 쥐 죽은 듯이 <u>고요하다가 나중에는 소란스럽다</u>.(x) 다. 작년에는 <u>꿀찌이다가 올부터 끝에서 세 번째이다</u>.(x)</p>	
<p>연습 15분</p>	<p>구조 적 연 습</p>	<p>▷ ‘-다가’를 이용하여 문장 만들기 : <보기>를 PPT로 보여주며 ‘-다가’를 이용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p> <p>[연습1]</p> <div data-bbox="497 1639 1129 182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p> </div>	<p>※PPT, 활동지1</p>

<보기>

A: 이야기를 하다. / 정거장을 지나쳤다.

B: 이야기를 하다가 정거장을 지나쳤다.

1. A: 쇼핑을 하다. / 저녁을 먹으러 갔다.

B: _____

2. A: 영화를 보다. / 지갑을 분실했다.

B: _____

3. A: 컴퓨터 검색을 하다./ 우연히 발견했다.

B: _____

4. A: 청소를 하다./ 친구에게 진화를 했다.

B: _____

유의
적
연습

[연습2]

◎ <보기>와 같이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드세요.

<보기>



▪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1.

※PPT,
활동지2



- _____
- _____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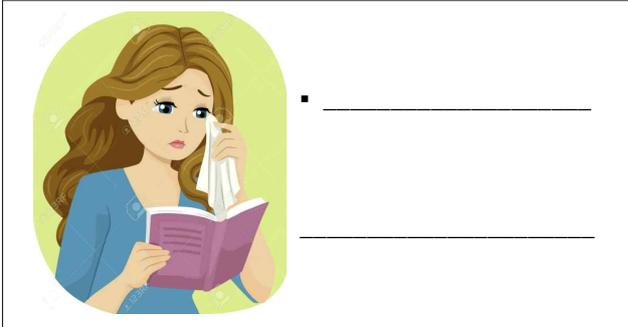
- _____
- _____

3.



- _____
- _____

4.

																	
<p style="text-align: center;">활용 15분</p>	<p>말하기 과제 수행</p> <p>▷ ‘-다가’와 결합하는 고빈도 동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다가’문장 만들고 그 내용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맞히기</p> <p>○ ‘-다가’와 결합하는 고빈도 동사목록을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학생들은 짝이 한 팀이 되어 그 동사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다가’문장을 만든다. 후에 각 팀별로 나와서 그 내용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반 친구들은 손을 들어 완성된 ‘-다가’ 문장을 맞힌다.</p> <p>T : 여기 ‘-다가’ 문장에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요. 짝과 함께 이 동사들을 이용하여 ‘-다가’문장들을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동사별로 어떠한 다양한 ‘-다가’문장들을 만들었는지 각 팀별로 나와서 몸짓으로 보여주고, 나머지 친구들은 어떤 ‘-다가’ 문장인지 손을 들어서 말하면 돼요.</p> <p>◎ 아래의 동사들을 이용하여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p> <table border="1" data-bbox="526 1615 1153 1827"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동사 목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하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먹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살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 있다</td> </tr> </tbody> </table>	동사 목록					1	하다	가다	타다	보다	2	놀다	먹다	살다	-고 있다	<p>※ 활동지3</p>
동사 목록																	
1	하다	가다	타다	보다													
2	놀다	먹다	살다	-고 있다													

		<table border="1">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오다</td> <td>싸우다</td> <td>자다</td> <td>곬타</td> </tr> <tr> <td>4</td> <td>쉬다</td> <td>받다</td> <td>찾다</td> <td>기다리다</td> </tr> <tr> <td>5</td> <td>여행하다</td> <td>생각하다</td> <td>쳐다보다</td> <td>지나가다</td> </tr> </table> <p><보기> <u>거리를 걷다가 돈을 주웠다.</u></p> <p>1. _____</p> <p>2. _____</p> <p>3. _____</p> <p>4. _____</p> <p>5. _____</p> <p>6. _____</p> <p>7. _____</p> <p>8. _____</p> <p>9. _____</p> <p>10. _____</p>						3	오다	싸우다	자다	곬타	4	쉬다	받다	찾다	기다리다	5	여행하다	생각하다	쳐다보다	지나가다	
3	오다	싸우다	자다	곬타																			
4	쉬다	받다	찾다	기다리다																			
5	여행하다	생각하다	쳐다보다	지나가다																			
마무리 5분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되짚기 ▷ 과제 안내하기 																					

	▷ 다음차시 예고하기	
--	-------------	--

4.2.2 인과

목표 문법	'-다가'	
학습 목표	1. 인과의 '-다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인과의 '-다가'를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학습 대상	한국어 3급 과정의 영어권 학습자 (10명)	
소요 시간	50분	
단 계 (시 간)	수업 내용	자료 및 지도상 의 유의점
도입 5분	<p>흥미 유발</p> <p>▷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학습 동기 유발하기 : 밤에 게임을 하고 있는 그림과 늦잠을 잔 그림 두 장을 보여주며 각각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p> <p>T :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S : 게임을 하고 있어요. (다른 그림을 가리키며) T: 지금은 어때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S: 늦잠을 잤어요. T : 맞아요.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밤에 게임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p>	<p>※PPT , 그림</p>

41) 노마히데키(2002)는 '-다가'의 주요 의미를 “동작의 도중에서 다른 동작으로 이행”이라고 본다면 '-다가'형이 취할 수 있는 용언은 어휘적으로 “일정한 시간적인 길이”를 가진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고 그런 용언은 바로 '하고 있다'형을 취하기 쉬운 용언이라고 하였다.

	<p>학습 목표 제시</p>	<p>▷ 학습 목표 제시하기 : 앞서 이야기 나눈 ‘-다가’를 적용한 문장을 보여주며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을 <u>하다가</u> 늦잠을 잤어요. <p>I overslept <u>while</u> playing a game.</p> </div> <p>T: 오늘은 앞 절의 상황이나 상태가 뒤 절의 이유나 원인이 되는 경우에 쓰는 표현인 ‘-다가’를 공부할 거예요.</p>	
<p>제시 10분</p>	<p>의미 제시</p>	<p>▷ ‘-다가’의 의미 제시하기 : 예문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가’의 의미를 파악한다.(교사가 읽고 학습자가 따라 읽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문1)</p> <p>희진 : 밥을 빨리 <u>먹다가</u> 체했어요.</p> <p>I think I have an upset stomach <u>while</u> eating fast.</p> <p>마크 :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올게요.</p> <p>I'll go to the pharmacy and buy digestive medicine.</p> </div> <p>(교사가 읽고 학습자가 따라 읽기)</p> <p>T: 희진이는 왜 체했어요? S: 밥을 빨리 먹다가 체했어요. T: 맞아요, 희진이는 밥을 빨리 먹었기 때문에 체했어요. 밥을 빨리 먹은 이유로 체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럴 때 “밥을 빨리 먹다가 체했어요.”라고 말해요.</p>	<p>※ P P T , 예문</p>

(예문21)

제인 : 너 무리해서 연습하다가 목 상태가 안 좋아졌잖아. 이제 좀 쉬어.

you've been practicing too hard and your voice has gotten worse. You should take a break.

영훈 :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Okay, I will do that.

(교사가 읽고 학습자가 따라 읽기)

T: 영훈은 왜 목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S: 무리해서 연습을 하다가요.

T: 맞아요, 무리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목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무리해서 연습을 한 이유로 목 상태가 나빠지는 결과를 얻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리해서 연습하다가 목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말해요.

● 인과의 ‘-다가’ 용례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로 나타난 영어대응표지인 while과 and로 대응된 예문으로 인과의 의미를 제시한다. 접속사 while과 and는 앞서 학습한 지속전환과 중단전환의 ‘-다가’에서 대표적으로 대응되었던 접속사였음을 상기시키며 이는 인과의 ‘-다가’는 지속전환과 중단전환에서 세상의 경험이나 얕으로 인해 분류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인과의 ‘-다가’는 의도하지 않은 일이 후행절에서 발생하고 그 후행절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을 알려준다.

T: 예문 1은 밥을 빨리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S: 체했어요.

T: 회진이는 체할 줄 알고 있었어요?

S: 아니요 몰랐어요.

T: 그럼 예문 2는 무리해서 연습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S: 목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T: 제인은 목 상태가 안 좋아질 줄 알고 있었어요?

S: 아니요, 몰랐어요.

T: 맞아요, 두 경우 다 체하거나 목 상태가 안 좋아진 것처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희진과 영훈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이어질 때의 다가 문장은 의도하지 않게 뒷절에서 안 좋은 일이 주로 일어나요.

● 문장 안에 부사 ‘너무, 빨리, 급히’ 등이 있으면 인과의 의미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영어 표현과 함께 설명한다.

(예문)

▫ 너무 빨리 먹다가 체했어.

I think I have an upset stomach while eating too fast.

▫ 급히 가다가 넘어졌어.

I fell while I was in a hurry.

T: 어찌다가 체했어요?

S: 너무 빨리 먹다가요.

T: 네, 그냥 밥을 먹다가 체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먹으면 더 잘 체해요.

T: 어찌다가 넘어졌어요?

S: 급히 가다가 넘어졌어요.

T: 맞아요, 그냥 가다가는 잘 안 넘어지지만 급히 가다가는 잘 넘어져요.

T: 이처럼 ‘-다가’ 문장 안에 너무(too), 빨리(fast), 천천히(slowly), 급히(in a hurry)와 같은 부사가

	<p>있으면 인과의 의미인 경우가 많아요.</p> <p>형태 제시</p> <p>▷ ‘-다가’의 형태 제시하기 : PPT) 형태 표와 예를 보며 ‘-다가’의 형태를 제시한다.</p> <p><형태> 동사 + ‘-다가’ 동사 어간의 끝음절의 받침에 상관없이 ‘-다가’를 쓴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예)</p> <p>먹다 → 먹다가 읽다 → 읽다가 닫다 → 닫다가 보다 → 보다가 하다 → 하다가 가다 → 가다가</p> </div> <p>제약 제시</p> <p>▷ ‘-다가’의 통사적 제약 제시하기 <통사 제약></p> <p>1) 주어·서술어 일치 제약 연결어미 ‘-다가’구문은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 예) 축구를 <u>하다가</u>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많이 나요.(o) 그는 축구를 <u>하다가</u> 넘어져서 나는 무릎에 피가 많이 나요.(x)</p> <p>2) 선·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다가’와 결합하는 선·후행절의 서술어는 동사만 올 수 있다 <선행절의 서술어> ㄱ.한국에서 <u>살다가</u> 영어를 다 잊었다.(o)</p>	<p>※ 중단 전환과 지속 전환의 형태가 같음을 알려주며 한 번씩 읽고 넘어간다.</p>
--	--	---

	<p>ㄴ. *날씨가 <u>춥다가</u> 동상에 걸렸다.(x) ㄷ. *김씨가 <u>선생이다가</u> 목상태가 안 좋아졌다.(x) <후행절의 서술어> ㄱ. 선생은 미음을 <u>먹다가</u> 혀를 데었다.(o) ㄴ. 쥐 죽은 듯이 <u>고요하다가</u> 어색하다.(x) ㄷ. 반에서 <u>꼴찌이다가</u> 청소 당번이다.(x)</p> <p>3) 문장 종결 제약 문장이 끝날 때 청유문과 명령문은 올 수 없다. ㄱ. <u>졸다가</u> 창에 머리를 부딪쳤다.(o) ㄴ. <u>졸다가</u> 창에 머리를 부딪치자.(x) ㄷ. <u>졸다가</u> 창에 머리를 부딪쳐라.(x) ㄹ. <u>졸다가</u> 창에 머리를 부딪쳤을까?(o) ㅁ. <u>졸다가</u> 창에 머리를 부딪치는구나.(o)</p>	
<p>연습 15분</p>	<p>구 조 > ‘-다가’를 이용하여 문장 만들기 적 연 : <보기>를 PPT로 보여주며 ‘-다가’를 이용한 문장을 습 만들어 보도록 한다.</p> <p>[연습1]</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width: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을 사용하다. ▪ 야식을 먹다. ▪ 뜨거운 국을 빨리 먹다. ▪ 수업시간에 떠들다. ▪ 축구를 하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width: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혀를 데었다. ▪ 선생님께 혼났다. ▪ 다리가 부러졌다. ▪ 손가락이 베었다. ▪ 살이 찼다. </div> </div> </div>	<p>※ PPT, 활동지 1</p>

<보기> 칼을 사용하다가 손가락이 베였다.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유의
적
연습

[연습2]

◎ <보기>와 같이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드세요.

<보기>



▪ 소파 위에서 뛰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1.

※
PPT,
활동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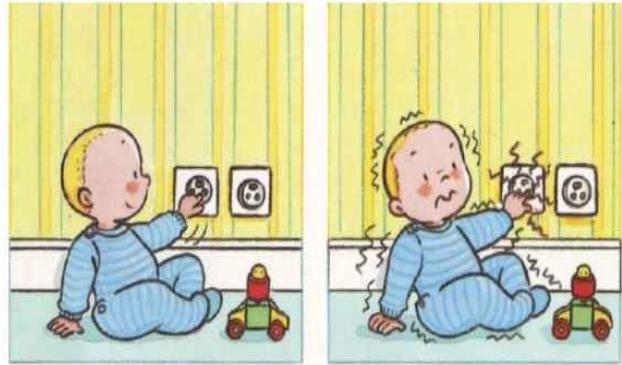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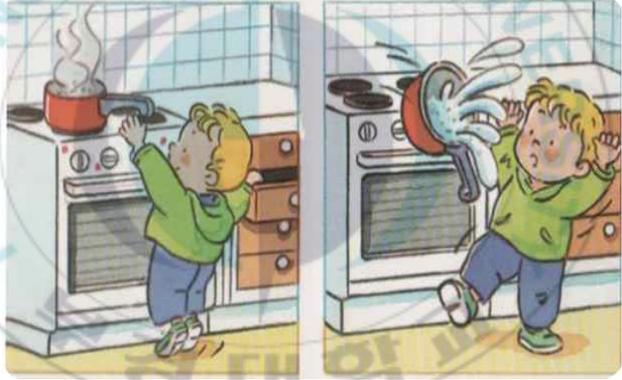
▪ _____

2.



▪ _____

3.

		 <p>■ _____</p> <p>4.</p>  <p>■ _____</p>	
<p>말하 기 과제 수행 15분</p>	<p>말하 기 과제 수행</p>	<p>▷ 문장카드에 적힌 내용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맞히기 : 짝이 한 조가 되어 앞으로 나와서 문장카드 하나를 뽑는다. 카드에 적혀있는 '-다가'로 연결된 문장의 선행절과 후행절을 두 친구가 각각 몸짓으로 표현한다. 나머지 반 친구들은 그것을 보고 손을 들어 완성된 '-다가'문장을 맞힌다.</p>	<p>※ 문장 카드</p>

		<p>T : 여기 '-다가' 문장이 적힌 카드들이 있어요. 짝이 한 조가 되어 반 친구들에게 몸짓으로 카드에 적힌 내용을 보여주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것을 보고 '-다가'문장을 맞힐 거예요. 함께 해볼까요?</p> <p><문장 카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매일 밤 야식을 먹다가 몸무게가 늘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계단에서 뛰다가 앞으로 넘어졌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추운데 밖에서 놀다가 감기에 걸렸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버스에서 졸다가 종점까지 잤다.</div>	
마무리 5분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되짚기 ▷ 과제 안내하기 ▷ 다음차시 예고하기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고,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한 실제 ‘-다가’의 용례를 활용하여 ‘-다가’의 영어 대응 양상을 분석한 후에 그를 바탕으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2장에서는 ‘-다가’가 가지는 특성을 의미적 기능과 통사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사전과 문법서, 그리고 기존 연구에 제시된 ‘-다가’의 의미기능을 고찰한 후에 그것을 종합하여 ‘-다가’의 의미기능을 중단전환과 지속전환, 인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다가’와 결합하는 동사가 가지는 지속성과 그것이 가지는 속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가’의 의미적 제약을 알아보았다. ‘-다가’의 통사적 특성은 주어·서술어 일치 제약, 선·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문장 종결 제약으로 나누어 전환과 인과의 의미기능별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다가’의 영어대응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서 나타날 ‘-다가’의 영어 대응 표지를 한영사전을 통해 미리 살펴보았고, 그 후에 한·영 병렬말뭉치에서 추출한 ‘-다가’의 실제 용례를 활용하여 ‘-다가’의 영어 대응 양상을 의미기능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 ‘-다가’의 영어 대응 표지를 살펴보면, 품사별로 접속사, 전치사, 부사, 분사 구문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상위 62%는 모두 while, after, when, and와 같이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로 나타났다. 의미기능별 빈도수는 중단전환의 빈도수가 제일 높았고 지속전환과 인과가 비슷한 수로 그 뒤를 이었다. 의미기능별로 영어대응 표지를 살펴보면, 중단전환은 접속사 and, after, while, but 순으로 나타났고, 지속전환은 접속사 while, when, and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과는 while, and, when, because 순으로 나타났다. 세 의미기능 모두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가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중단전환은 시간의 선후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and의 빈도수가 특히 높았고, 지속전환은 시간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while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인과는 지속전환에서 많이 나타난 while의 빈도수가 높음과 동시에 중단전환에서 많이 나타난 and 역시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다가'의 수업 모형을 만들기에 앞서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을 살펴서 '-다가의 학습단계 및 교육 과정을 검토하였고, 또한 '-다가'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다가'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재는 '-다가'의 문법 설명을 대부분 전환의 의미기능으로 제시하고 있고 예문으로는 중단전환의 의미기능만이 주로 제시되어 있어 전환의 또 다른 의미기능인 지속전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다가'의 문법 설명에 있어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을 함께 제시하되, 그 둘의 차이점을 적절한 예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가'의 인과의 의미기능을 다루지 않는 교재가 대부분이므로 인과의 의미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에 따라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은 2급에서 함께 다루고, 인과의 의미기능은 3급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다가'의 학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재에 '-다가'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은 거의 반영되어있지 않고 제시되어 있는 제약은 교재마다 일관되지 않으므로 '-다가'의 다양한 의미기능에 맞는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3장의 영어 대응 양상 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다가'의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없던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다가'의 첫 연구로서, 연

결어미라는 문법항목이 없어 ‘-다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한·영 병렬 말뭉치에서 추출한 실제 ‘-다가’의 용례를 활용하여 ‘-다가’에 대응하는 적절한 영어표현 및 양상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정적인 범위의 말뭉치 분석을 통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넓고 일반화된 규칙을 발견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강현화, 신자영, 이재성, 임효상(2003), 『대조분석론 -한국어·스페인어 문형 대조를 바탕으로-』, 서울: 도서출판 역락.
- 구본관, 박재연, 이선웅, 이진호, 황선엽(2015), 『한국어문법총론 I』, 서울: 집문당.
- 김미형(2009), 『인지적 대조언어학의 방법론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노마 히데키(2002),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서울: 태학사.
- 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조사와 어미의 형태·통사론-』, 서울: 도서출판 월인.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 장광군(1999), 『한국어 연결어미의 표현론』, 서울: 도서출판 월인.
- 최재희(1965), 『국어의 접속문 구성 연구』, 서울: 탑출판사.
- 최현배(1965),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허용, 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경기도: 소통.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Group, Ltd

2. 논문 및 학술지

- 국립국어원(2005a),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 국립국어원.
- 김문웅(1982), '-다가' 류의 문법적 범주. 『한글』 176, 149-178쪽.
- 김준기(2010),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에 대하여, 『어문학』 108.
- 남수경, 채숙희(2004),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 연구, 『한국어교육』 15(1), 33-50쪽 .
- 남영복(2015), 한국어 연결어미 '-다가'에 대응하는 일본어 형식에 대하여, 『일본학 연구』 44, 277-298쪽.
- 노마 히데키(2006), 한국어 교육의 원리론으로서의 대조언어학적 접근 -한국어와 일본어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 30쪽.
- 류선영(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방안,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경모(2020), 다국어 병렬 말뭉치의 구축과 한국어교육 연구에의 활용, 『한국학논집』 78, 187-220쪽.
- 박소영(2002), 연결어미의 관점 상 기능
- 박중호(2015),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다가'의 특성과 기술 방안 연구, 『우리말글』 66, 63-96쪽.
- 백낙천(2003), 국어 접속어미의 형태론과 사전 기술에 대한 연구, 『동학어문학』 40, 1-28쪽
- 서상규, 김형정(2005), 구어 말뭉치 설계의 몇 가지 조건, 『언어사실과 관점』 16(0), 5-29쪽
4~16합집, 5-29쪽.
- 석명도(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결어미 '-다가'의 교육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낙수(1976), 접속사 [다가]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7-8, 171-183쪽.
- 신미선(2019), 한국어 연결어미 ‘-다가’의 일본어 대응 양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자영(2010), 병렬 코퍼스 및 학습자 코퍼스를 이용한 중간언어 연구 방법론, 『언어사실과 관점』 25, 71-87쪽.
- 양양(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다가’, ‘-다’의 의미·통사적 분석과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요시모토 하지메(2012), 연결어미 ‘-다가’의 기능과 문법적 제약, 『국어교육』 137.
- 요외(2016), 접속토 “-다가”의 문법적의미와 용법 연구, 『중국조선어문(5)』 5.
- 유현경, 황은하(2010), 병렬말뭉치 구축과 응용, 『언어사실과 관점』 25, 5-40쪽.
- 이기갑(2004), ‘-다가’의 의미 확대, 『어학연구』 40(3).
- 이세진(2018),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2006), ‘다가’의 용법에 대하여, 『한국어학』 32, 213-239.
- 이슬비(2014), 한국어 연결어미 ‘-다가’의 교육 내용 연구 -상적 의미 및 용언 결합 제약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6.
- 이은경(1999), 구어체 텍스트에서의 한국어 연결 어미의 기능, 『국어학(國語學)』 167-198쪽.
- 이정희(2002),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회환(2018), 연결어미 ‘-다가’의 한국어 교육 내용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2(1), (통권 22호).
- 진염민(2013), 한국어 연결어미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제언, 『한어문교

육』 29, 143-167쪽

최소정(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다가’의 교육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팽향(2017), 학부 유학생의 글쓰기에 나타난 한국어 연결어미 ‘-다가’ 사용
능력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윤기(2009), 상적 의미에 따른 연결어미의 결합 제약 연구 -메타언어를
활용한 연결어미 교육을 위하여-,

3. 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
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두산동아 사서편집국(1971), 『동아 프라임 한영사전』, 서울: 두산동아.

두산동아 사서편집국(1998), 『연세 한국어 사전』, 서울: 두산동아.

민중서림편집국(1972), 『옛센스 한영사전』, 경기도: 민중서림.

시사영어사 사전편찬실(1993), 『엘리트 한영대사전』, 서울: 시사영어사.

4. 문법서

강현화, 이현정, 남신혜, 장채린, 홍연정, 김강희(2016), 『한국어교육 문법:
자료 편』, 서울: 한글파크.

국립국어원(2005b),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체계 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국립국어원(2005c),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용법 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니케이션북스.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서울: 도서출판 하우.
이희자, 이종희(2010),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4. 한국어 교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2A』, 투판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3A』, 투판즈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9a), 『서강한국어2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
교육원 출판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9b), 『서강한국어3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
육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7), 『연세 한국어2』, 연세대 출판부
고려대학교 한국어 문화교육센터(2008), 『재미있는 한국어3』, 교보문고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한국어2-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부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2015), 『함께 배워요 한국어2B』, 동국대학교
출판부